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학석사학위논문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 老舍 『四世同堂』을 중심으로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김 지 영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 老舍 『四世同堂』 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이 강 재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월 7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김 지 영

김지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7월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 【국문초록】

#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 老舍 『四世同堂』을 중심으로

김 지 영

지금까지의 把자문 연구는 ‘처치 의미’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 반면, ‘사동의미’의 把자문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把자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본고는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把자문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사동표현인 使자문과의 비교를 통해 두 문형의 사동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본고는 老舍의 『四世同堂』에 출현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 전체를 대상으로, 의미·통사·화용 층위에서 두 문형을 비교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가 두 문형의 가시적인 차이를 단순 비교한 것에서 더 나아가, 의미를 통사·화용과 결합하여 두 문형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함께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차이는 다음과 같다.

- 1) 원시 자형 분석에 의하면, 把자와 使자는 각각 ‘직접적 통제’와 ‘능동적 순응’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갖는다.
- 2) 이러한 원형적 의미는 문장에 반영되어 두 문형의 의미 특징으로 나타난다.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사동자의 피사동자에 대한 통제에, 使자문은 피사동자의 사동자에 대한 순응과 능동적 행위에 중점이 있다.

3) 두 문형의 사동의미를 Talmy(1988)의 힘 역학 도식으로 비교하면,

- ①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반동체가 상대적인 큰 힘으로 주동체의 활동 및 정지를 직접 통제하는 형태이다. ② 使자문은 주동체가 내재적인 큰 힘으로 반동체의 영향에 순응하여 능동적으로 활동 및 정지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둘째, 두 문형의 의미 차이는 통사 구조에 반영되어 문장의 결합조건을 결정하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어부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두 문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 ①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제자·사동자·반동체 중심인 의미 특징이 통사에 반영되어, 보다 강력한 통제성을 갖는 유정물 혹은 구체사물이 주어에 위치한다. ② 使자문은 피통제자·피사동자·주동체가 핵심이 되어, 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한 사건이나 추상사물이 목적어로 사용된다.

2) 목적어부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두 문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 ① 의미상 통제자·사동자·반동체 중심인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사적으로 강력한 목적어를 갖기 어렵기 때문에 무정물 목적어가 주로 사용된다. ② 使자문은 의미상 피통제자·피사동자·주동체가 핵심이 되므로 목적어가 중심이 되어 유정물 목적어가 우세한다.

3) 술어부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 및 형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 ① 술어의 의미 측면에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제력이 명확히 드러나는 구체적인 행위 및 동작 술어가 우세한 반면, 使자문은 능동성이 잘 드러나는 심리·감각 술어가 자주 사용된다. ② 형식 측면에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제행위의 결과를 제시하는 動結式 술어를, 使자문은 심리·감각을 나타내는 단독 술어로도 충분히 피사동자의 능동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單獨式 술어를 선호한다.

셋째, 두 문형의 의미 차이는 실제 의사소통 행위에서 화자(話者)의 언어 구성 방식을 결정하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두 문형이 서로 다른 문장에서 사용되는 경우,

①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문장에서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장면을 조성하는 배경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사동자(반동체)의 직접적 통제로 설명되는 把자의 원형적 의미에서 비롯되며, 피사동자(주동체)는 반동체를 제압하거나 저항할만한 강한 의지를 지니지 못해 통제에 의해 변화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약한 의지로써 문장 전체의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배경’으로 존재하게 한다. ② 使자문은 문미에서 문장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전경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피사동자(주동체)의 능동적인 순응성을 나타내는 使자에서 비롯되며, 주동체는 사동자(반동체)의 통제를 받지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녀 본연의 경향성을 유지한다. 이는 使자문이 강한 의지로 문장 전체의 핵심내용이 되는 ‘전경’으로 작용하게 한다.

2) 두 문형이 동일 문장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

① 두 문형이 이어지는 서로 다른 절에서 병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경 정보를 전달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전경 정보를 나타내는 使자문에 선행하여 출현한다. ② 두 문형이 같은 절에서 내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경인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전경인 使자문 안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형태가 선호된다.

종합해보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차이는 통사 및 화용 층위에 반영되어 문장 성분의 결합 조건 및 화자의 실제 언어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두 문형의 통사적·화용적 차이는 단순한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닌, 근원적인 의미 차이에서 비롯되는 습당한 결과이다.

주요어 : 사동, 把자문, 使자문, 원형의미, 카이제곱( $\chi^2$ )검정, 전경, 배경

학 번 : 2010 - 20010



## 【목 차】

【국문초록】 .....	i
1. 서론 .....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1.2 선행연구 .....	4
1.3 연구범위 및 방법 .....	7
2. 의미론적 비교 연구 .....	9
2.1 把자의 ‘직접적 통제성’과 把자문 .....	9
2.2 使자의 ‘능동적 순응성’과 使자문 .....	21
2.3 힘 역학(Force Dynamics) 이론으로 본 사동의미 .....	31
2.4 소결 .....	36
3. 통사론적 비교 연구 .....	38
3.1 주어부의 유·무정성 비교 연구 .....	40
3.2 목적어부의 유·무정성 비교 연구 .....	47
3.3 술어부의 의미·형식 비교 연구 .....	50
3.4 소결 .....	56
4. 화용론적 비교 연구 .....	61
4.1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전경-배경’ .....	64
4.2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함께 쓰일 때의 ‘전경-배경’ .....	70
4.3 소결 .....	75
5. 결론 .....	78

【참고문헌】 .....	81
【부록】 .....	85
【中文摘要】 .....	87

## 【도표 및 그림 목차】

<도표1> 사동의미의 分解圖 .....	3
<도표2>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비교(사전류) .....	4
<도표3> 把자의 의미 .....	10
<도표4> 把자의 본래의미 .....	13
<도표5> 把자의 파생의미 .....	13
<도표6> 사동의미 把자문의 사동성 .....	21
<도표7> 使자의 의미 .....	22
<도표8> 使자의 본래의미 .....	24
<도표9> 使자의 파생의미 .....	24
<도표10> 使자문의 사동성 .....	30
<도표11> 사동의미 把자문의 힘 역학 도식① .....	33
<도표12> 사동의미 把자문의 힘 역학 도식② .....	34
<도표13> 使자문의 힘 역학 도식① .....	35
<도표14> 使자문의 힘 역학 도식② .....	36
<도표15> 두 문형의 단어의미 비교 .....	36
<도표16> 두 문형의 문장의미 비교 .....	37
<도표17> 두 문형의 힘 역학 비교 .....	37
<도표18> 순처치, 순사동, 준사동 .....	39
<도표19> 문형 × 주어 유 · 부정성 교차표 .....	41
<도표20> 주어 속성별 결합빈도 .....	43
<도표21> 통제의 양면성 .....	45
<도표22> 순응의 양면성 .....	45
<도표23> 문형 × 목적어 유 · 부정성 교차표 .....	48
<도표24> 목적어 속성별 결합빈도 .....	49
<도표25> 문형 × 술어의미 교차표 .....	51
<도표26> 문형 × 술어형식 교차표 .....	53
<도표27> 두 문형의 주어부 비교 .....	57
<도표28> 두 문형의 목적어부 비교 .....	58

<도표29> 두 문형의 술어부 비교 .....	59
<도표30> 두 문형의 통사 특징 비교 .....	59
<도표31> 전경과 배경의 구분 .....	63
<도표32> ‘전경-배경’에 대한 기존 연구 .....	66
<도표33> 사동의미 把자문의 힘 역학 도식 .....	68
<도표34> 使자문의 힘 역학 도식 .....	70
<도표35> 의미에 따른 화용의 차이 .....	77
<그림1> 전경과 배경의 개념 .....	62
<그림2> 집합 A와 B의 포함 관계 .....	74



# 1. 서론

##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把자문은 처치식(處置式)이라고도 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예문을 살펴보자.

- (1) a. 昨天他把自行車丟了。 (『實用現代漢語語法』)  
 어제 그는 자전거를 잃어버렸다.  
 b. 我不小心把杯子打了。 (        〃        )  
 나는 조심하지 않아 컵을 깼다.

두 문장은 모두 ‘주어+把+목적어+술어’의 형식으로, 전치사 把의 목적어와 문장 전체의 술어가 술목 관계를 이루는 특징을 지닌다.<sup>1)</sup> (1a)는 그가 ‘자전거’라는 대상을 잃어버린 행위를 나타내므로 ‘丟自行車’가 성립하고, (1b)도 ‘打杯子’의 술목 구조가 성립된다. 현재 주요 중국어 어법서 및 사전류에서는 이러한 把자문의 의미를 ‘처치의미’로 기술하고 把자문의 기본의미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위의 예문과 같이 설명할 수 없는 把자문이 분명 존재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 (2) a. 這篇文章把我寫苦了。 (范曉 2000)  
 b. 這篇文章使我寫苦了。 (        〃        )  
 이 글이 나를 힘들게 했다.  
 (3) a. 一個春節把孩子們的心都玩儿野了。 (呂叔湘 1986)  
 b. 一個春節使(得)孩子們的心都玩儿野了。 (        〃        )

1) 『實用現代漢語語法』에 따르면, 대다수의 把자문은 전치사 把의 목적어와 문장 전체의 술어 사이에 술목 관계가 존재한다.

## 2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춘절(春節)이 아이들의 마음을 확 풀리게 했다.

(2a)와 (3a) 역시 ‘주어+把+목적어+술어’의 형식을 갖지만, (1)처럼 술목관계를 이루지 않는다. (2a)에서 ‘나’는 힘든 주체이며, ‘이 글’은 힘들게 한 원인을 제공한다. (3a)에서도 ‘아이들’은 마음이 풀린 주체이고, ‘춘절’은 아이들의 마음을 풀리게 한 원인이 된다. 즉, 두 예문에서 전치사 把의 목적어와 문장 전체의 술어는 주술 관계를 이루고, 문장 전체는 ‘사동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把자문은 의미상 여타의 사동 표현들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2b), (3b)와 같이 전형적인 사동 표현인 使자문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다.

이처럼 (2a), (3a)에서의 把자문의 의미는 (1)과 비교했을 때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把자문 의미에 대한 연구는 (1)의 ‘처치의미’에 치중되어 있고 (2a), (3a)의 ‘사동의미’에 대한 고찰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把자문을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본고는 ‘사동의미’를 지니는 把자문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사동표현인 使자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그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이제 중국어에서 ‘사동(使動)’<sup>2)</sup>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지 살펴보자. 사동에 대한 중국인의 사유는 일찍이 『마씨문통(馬氏文通)』<sup>3)</sup>에서부터 그 흔적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예문 (2)~(3)을 살펴보면, 네 문장은 모두 ‘~게 하다’로 해석되어 사동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모두 형식상 ‘사동자(使動者)’와 ‘피사동자(被使動者)’를 갖는데, 사동행위의 주체인 사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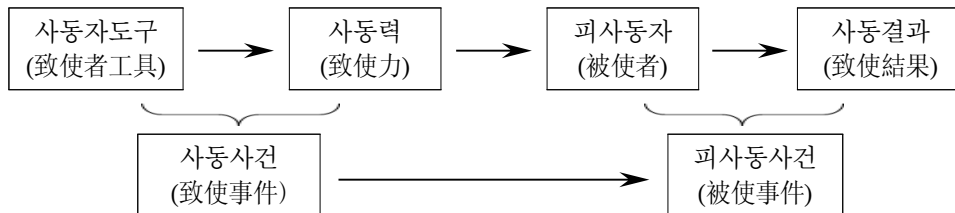
---

2) ‘사동’에 관련된 명칭에는 왕력(王力)의 ‘치동(致動)’을 비롯해 ‘치사(致使)’, ‘사령(使 令)’, ‘사동(使動)’, ‘사역(使役)’ 등이 있다. 하지만 ‘치동(致動)’은 주로 자동사, 형용사 혹은 명사의 사동용법에 해당되는 사동개념을 가리키고, ‘사령(使令)’과 ‘사역(使役)’은 ‘시키다,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로 주로 겹어문의 첫 번째 동사들을 가리킨다. 또, ‘치사(致使)’라는 단어는 문장에서 단독으로 쓰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고 명사도 아니므로 명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더욱이 ‘치사’를 한국어로 그대로 옮겨 사용하면 ‘치사(致死)’ 혹은 ‘치사(致謝)’를 떠올리게 되어 용어에 대해 혼란이 생기게 된다. 이에 본고는 한국어학계에서 한 세기가 가까이 사용해오고 있고 중국에서도 사용되는 ‘사동(使動)’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박미정(2001)

3) 1898년 마건충(馬建忠)에 의해 쓰인 중국 최초의 어법서로서 사동 현상을 최초로 언급한 바 있다. 周紅(2004, 2006a), 宛新政(2004), 김봉민(2012).

는 각각 ‘이 글’과 ‘춘절’이고, 사동행위의 대상인 피사동자는 ‘나’와 ‘아이들의 마음’이다. 또한, 의미상 ‘사동원인(致因)’+‘사동결과(致果)’로 분석되는데, (1)에서는 이 글을 쓴 결과 힘들게 되었고, (2)에서는 춘절이 온 결과 아이들의 마음이 풀리게 되었다. 이렇듯 사동의 원인과 결과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힘(致使力)’이 작용한다. 사동자는 피사동자에게 이 힘을 전달하고, 피사동자는 힘의 영향을 받아 결과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사동의미의 기제를 周紅(2006a)은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표현한다.

<도표1> 사동의미의 分解圖



이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2)~(3)의 (a), (b) 모두가 사동의미를 지닌다면, 把자와 使자는 임의대로 사용해도 무관한 것인가. 둘째, 만약 그렇다면 굳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 둘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들은 다음의 예문에서 더욱 심화된다.

- (4) a. 这件事使我们们都伤心。 (童燕 2007)  
 b. \*这件事把我们们都伤心。 (    〃    )  
 이 일이 우리를 속상하게 했다.
- (5) a. 一阵电话铃声把她弄醒了。 (李大忠 1996)  
 b. \*一阵电话铃声使她弄醒了。 (    〃    )  
 전화벨 소리가 그녀를 깨어나게 했다.

위의 예문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항상 호환(互換)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문형이 임의적 선택에 의해 사용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해야하는가. 교학(敎學)적인 면에서, (2)~(3)의 문장을 통



#### 4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해 把자문이 사동의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인식한 학습자는 얼마든지 (4b)나 (5b)와 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실제로 신미경(2011)은 HSK 动态作文语料库<sup>4)</sup>에 나타난 한국인 학습자의 把자문의 오류유형을 분석한 바 있는데, 그 중 把자를 使자와 같은 사동표현들로 대치(代置)하여 사용한 비율이 전체 把자문 대치오류의 과반이 넘는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전형적인 사동표현인 使자문의 비교 분석에 대한 시급성을 보여준다.

### 1.2 선행 연구

이제 본격적인 비교 분석에 앞서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다음은 주요 현대중국어 사전류에 기술된 두 문형의 차이이다.

<도표2>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비교(사전류)

	사동의미의 把자문	使자문
『現代漢語詞典』	목적어 뒤에 출현하는 동사는 ‘忙, 累, 急, 气’ 등이 있고, 결과보어와 함께 쓰인다. 전체문형은 사동의미를 지닌다. 예: 把他乐坏了。 差点儿把他急疯了。	‘让’, ‘叫’의 의미로, 사동의미를 나타낸다. 예: 办事使群众满意。 加强质量管理, 使产品合格率不断上升。
『現代漢語八百詞』	사동의미를 나타낸다. 뒤에 오는 동사는 대부분 동결식(动结式)이다. 예: 把嗓子喊哑了。 把问题搞清楚。	사동의미를 나타내고, ‘让’ 과 ‘叫’의 뜻을 지닌다. 예: 他的技术使我佩服。 这样才能使群众满意。
『中韓辭典』	동사가 결과보어·정태보어(情态补语)를 가질 때 주로 사동의미를 나타낸다. 예: 把她羞哭了。 这一趟可把他累坏了。	‘(…에게)…하게 하다, …시키다’의 의미이다. 예: 使人振奋。 虚心使人进步, 骄傲使人落后。

4) 북경어언대학교(北京語言大學校)에서 HSK에 응시한 외국인의 작문과목 시험에서 나타난 오류를 국가별, 유형별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한 말뭉치이다.

정리해보면, 두 문형은 의미상 모두 사동의미를 나타내고 통사적으로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결과보어와 자주 결합된다. 하지만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 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결여되어 있다.

이제 두 문형을 비교 분석한 주요 연구들을 살펴보자. 宛新政(2004)은 使자문과 사동의미의 把자문을 통사·의미·화용의 세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먼저, 통사에 대한 비교이다.

#### 단독형식(光杆形式)

这件事使我高兴。

\*这件事把我高兴。

我们要使世界局势稳定。

\*我们要把世界局势稳定。

#### 동보형식(動補形式)

这件事使我高兴坏了。

这件事把我高兴坏了。

我们要使世界局势稳定下来。

我们要把世界局势稳定下来。

술어의 구성에 있어서 두 문형 모두 복잡한 형식을 선호하지만, 使자문은 단독형식을 취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단독형식과의 결합이 제한적이라고 서술한다. 하지만 이러한 통사적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해설은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다. 즉, 가시적인 통사 현상으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을 단순 비교했을 뿐, 이러한 통사 특징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다음은 의미에 대한 비교이다.

- 사동의미의 把자문 : 주어[+人] + 把 + 목적어[-人] + 술어[-人]
- 使자문 : 주어[-人] + 使 + 목적어[+人] + 술어[+人]

각 문장성분들의 의미를 위와 같이 [ $\pm$ 人]으로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使자문은 외부의 힘을 받아 비교적 능동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하고, 사동의미의 把자문의 목적어는 외부의 강렬한 힘을 받아 수동적으로 어떠한 상태를 드러낸다. 즉, 使자문은 外因과 동시에 內因을 강조하

## 6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고,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두드러지는 外因에 중점을 둔 채 內因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하지만, [±人]만으로 능동성과 수동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사람 목적어가 아닌 使자문은 능동성이 약하고, 사람 목적어인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수동성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使자문이 왜 외부의 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반응하고,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어떠한 이유로 외부의 힘을 받아 수동적인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단순 의미 비교에 머물기보다 두 문형의 본래의미에 접근하여 그것이 어떻게 지금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賀曉玲(2001)의 화용에 대한 비교이다.

화자(話者)는 使자문과 把자문을 선택할 때에 주관적인 경향성을 갖는데, 使자문은 배경(背景)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고, 把자문은 전경(前景)을 서술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문형을 함께 사용할 때에는 把자문이 使자문 앞에 오는 경향이 있다.

두 문형의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결론이다. 하지만 학습자가 이를 실제 사용상에 반영하기에는 어떠한 과정과 원리에 의해 使자문이 ‘배경’이고 把자문이 ‘전경’인지에 대한 해설이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종합해 보면,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표면적 차이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는 두 문형의 사동의미 차이를 근본적으로 밝히는 데에 분명 한계가 있다. 더욱이 교학에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어려움이 더욱 크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에 대해 비교 분석을 진행하되, 把자와 使자의 본래의미 즉, 의미적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각 단어의 원형적 의미를 도출하고, 두 문형의 기본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두 문형의 통사·화용의 차이도 함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들도 두 문형을 혼동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1.3 연구 범위 및 방법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대표적인 사동표지인 使자문과 사동의미의 把자문을 그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 자료는 노사(老舍)<sup>5)</sup>의 장편소설 작품인 『사세동당(四世同堂)』<sup>6)</sup>의 使자문과 把자문 전체(使자문 641문장, 把자문 1977문장)로 하며, 전체 把자문에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을 추출한 후 使자문과 비교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배제하고자, 한 작가가 동일 작품 안에서 사용한 把자문과 使자문 전체를 분석하는 전서(專書)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두 문형을 효과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의미를 통사·화용과 결합하여 두 문형이 어떠한 차이점을 지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통사, 의미, 화용 층위의 고정된 분석 순서에서 벗어나, 의미 층위의 분석을 먼저 진행한 후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사·화용 층위에 각각 적용함으로써, 두 문형의 의미적 토대가 통사·화용 측면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와 과정을 밟아 논의를 진행한다.

2장에서는 두 문형의 의미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把자와 使자의 원시 자형을

---

5) 노사(老舍)의 작품은 현대중국어의 형성과 규범화에 큰 영향을 주어 현대 중국어 연구에 유용한 자료가 된다. 그는 언어를 이끌고 규범화하는 것이 문학가의 역사적 책임이라 여기고 지역 방언의 과도한 사용을 지양하고 표준어(普通話) 사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일상생활과 동떨어진 단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단어의 심미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였고, 표준음과 한자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섰을 뿐 아니라, 당시 유행했던 서구화된 문장 사용을 지양하고 간결한 중국어 문장의 사용을 제창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다.李志忠(2003).

6) 『사세동당(四世同堂)』은 중일전쟁 기간(1937년~1945년)동안 일제에 점령된 북경의 ‘小羊圈’이라는 골목 마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祁氏 집안의 가족을 중심으로 골목 사람들이 일제의 지배를 겪으며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3부작으로 구성된 연작(聯作) 소설로, 『황혹(惶惑)』은 1944년~1945년 『掃蕩報』에 연재되었고, 『투생(偷生)』은 1945년 『世界日報』에, 『기황(饑荒)』은 일부가 작가의 미국 체류기간에 집필되었으며, 68章~87章이 1950년~1951년 『小說月刊』에 연재되었다. 100만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과 약 6년이라는 오랜 창작 기간이 말해주듯 노사(老舍)가 다른 어느 소설에 비해 보다 많은 정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박재범(2008).

## 8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 비교 연구

통해 각 단어의 원형적 의미를 밝히고,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에 각각 어떻게 반영되는지 비교 고찰한다. 아울러 두 문형의 사동의미를 Talmy(1988)의 힘 역학(Force Dynamics) 이론에 적용하여 의미 차이를 가시화한다. 3장에서는 의미 차이에서 비롯되는 통사적 차이를 규명한다.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을 이루는 각각의 문장성분들에 대한 통계검정 및 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서술하고, 앞서 도출한 의미 차이가 통사 특징의 차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4장에서는 의미·통사 비교를 토대로 화용상의 비교 분석을 진행한다. 담화 화용론의 ‘전경-배경’의 개념을 이용하여 앞서 도출된 결과가 실제 언어사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5장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여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 2. 의미론적 비교 연구

두 문형의 사동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把자와 使자에 대한 의미적 토대를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把자와 使자의 원시 자형을 통해 두 단어의 원형적 의미를 고찰하고, 나아가 이들이 把자문과 使자문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다양한 예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1 把자의 ‘직접적 통제성’과 把자문

#### 2.1.1 把자의 ‘직접적 통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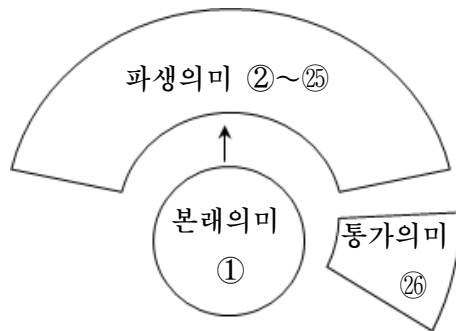
『漢語大詞典』에서 제시하는 把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 |                                       |                                 |
|---------------------------------------|---------------------------------|
| ① 손으로 쥐다, 잡다(握, 执)                    | ⑬ 어림수(约数)                       |
| ②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굵기나 크기<br>(一掌所握的粗细或多少) | ⑭ 주다(给)                         |
| ③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긴 물체<br>(某些一手可握持的长形之物) | ⑮ 전치사: ~로 여기다(犹当, 当作)           |
| ④ 한 데 엮은 묶음(扎成束的东西)                   | ⑯ 전치사: ~하게 하다(让, 使得)            |
| ⑤ 관장하다, 통제하다(掌管, 控制)                  | ⑰ 전치사: ~에서(在)                   |
| ⑥ 지키다, 파수보다(把守, 看守)                   | ⑱ 전치사: 처치(处置)의미(将)              |
| ⑦ 무술, 기술, 솜씨(把式)                      | ⑲ 전치사: ~에 대해(对于)                |
| ⑧ 진찰하다(诊): 把脉(맥을 짚다)                  | ⑳ 전치사: ~당하다(被)                  |
| ⑨ 뒤집다(翻)                              | ㉑ 전치사: ~부터(从)                   |
| ⑩ 부축하다(扶持, 扶着)                        | ㉒ 양사: 한 손으로 쥘만한 분량<br>(一手握持的数量) |
|                                       | ㉓ 양사: 자루가 있는 기구                 |

- |   |  |
|---|--|
| ⑪ 어린아이의 두 다리를 받쳐 들고<br>대·소변을 누이다<br>(托起小孩两腿, 让他大小便)<br>⑫ 의형제 관계를 맺다<br>(结拜成异姓兄弟等关系) | (有把手的器物)<br>⑭ 양사: 손동작(手的动作)<br>⑮ 양사: 추상적인 사물<br>(某些较抽象的事物)<br>⑯ ‘靶’자와 통용: 把子(과녁) |
|---|--|

사전의 범례(凡例)에 따르면 “다의자(多義字)는 본래의미(本義), 파생의미(引申義), 통가의미(通假義)의 순서로 배열한다”고 하였으니, 26개의 의미항목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도표3> 把자의 의미



하지만 이는 把자의 의미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일 뿐, 각각의 의미사이에 존재하는 미세한 간격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④ ‘한 데 엮은 묶음’의 의미와 ⑤ ‘지키다, 파수보다’의 의미는 서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⑨ ‘뒤집다’와 ⑩ ‘부축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의미적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여러 의미들

7) 본래의미(本義)는 그 자(字)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당시의 의미이다. 다의자(多義字)의 여러 자의(字義) 중에는 반드시 하나의 본래의미가 있는데, 이는 의미가 분화되는 기점이며 다른 의미가 인신되는 근원이자 전체 자의 체계를 연계하는 핵심 요소이다. 파생의미(引申義)는 본래의미에서 인신되어 나온, 즉 파생된 의미이다. ‘인신되었다’는 것은 본래의미와 파생의미 사이에 공유하는 의미 자질과 공유하지 않는 의미 자질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통가의미(通假義)는 가차의미(假借義)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원래부터 없어서 부득이 다른 글자를 빌려서 부여한 의미인데 반해, 그 의미를 갖는 본자(本字)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자와 어음(語音)이 같거나 비슷한 글자를 빌려서 부여한 의미이다. 이영주(2000).

이 한 단어 안에 공존한다. 그렇다면 把자는 어떻게 이들을 유기적으로 아우르고 있는가. 이제 그 유기적 연결고리를 확보하기 위해, 把자의 원시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원형(prototype)<sup>8)</sup>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sup>9)</sup>

把자는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전서(篆書) 자형에서 그 처음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把，握也。从手巴聲。搏下切。

위의 설명에 따르면 把자는 ‘잡다, 쥐다’라는 의미를 지닌 형성자(形聲字)이다. 해설대로 手자가 의미를 나타내고 巴자가 소리를 담당한다면, ‘손’이라는 의미만으로도 ‘잡다, 쥐다’의 의미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손으로 취할 수 있는 수많은 동작들 중 把자가 ‘잡다, 쥐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이유는 의문으로 남는다. 이제 巴자의 표의(表義)기능에 대해 생각해보자. 巴자는 『說文解字』에 의하면 코끼리를 삼킨다는 전설 속의 뱀을 나타내는 상형자(象形字)이다. 뱀이 물건에 달라붙어 기어가기 좋아하기 때문에 巴자는 ‘黏貼, 依附, 靠近’의 뜻으로 확장되었다. 즉, 把자는 ‘손(手)’이라는 의미에 물건에 달라붙어 기어가는 속성을 지닌 ‘뱀(巴)’의 의미가 더해져서 ‘손으로 무언가를 쥐거나 잡는 것’을 의미한다.<sup>10)</sup>

8) 원형이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으로, Rosch(1975)는 원형이란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이고 적절하며, 중심적이고 이상적인 좋은 보기(example)를 말하며, 사람은 어떤 범주의 원형으로 생각되는 보기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것에 비추어 다른 보기들을 대조함으로써 사물을 이해하고 처리한다고 하였다. 임지룡(1997). 이에 본고는 각 단어를 인식하는 중국인들의 사유 속에 사전상의 본래의미(本義)를 넘어선 원형적인 의미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9) 최초의 단어의미는 단어의 서면표현인 글자를 통해 알 수 있지만, 언어는 문자보다 먼저 있었고 언어로서의 한 단어가 문자로 표현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 시간 동안 단어의미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했고 진정한 단어의 본래의미는 확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단어의 본래의미는 문자의 본래의미 즉, 조자(造字) 당시의 의미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는 갑골문의 자형 및 설문해자 등의 문자학적 지식에 의한 자형 분석으로 밝혀낼 수 있다. 임명화(2007), 이강재 譯(2012). 이에 본고는 원시 자형 분석을 통해 각 단어의 원형의미에 접근하고 또, 문학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시된 예문은 『漢語大詞典』, 『漢語原流詞典』 및 북경대학교 고대한어 말뭉치를 참고하였다.



이처럼 ‘형성겸회의(形聲兼會意)’ 혹은 ‘회의겸형성(會意兼形聲)’<sup>11)</sup>으로 설명할 수 있는 把자는 ‘잡다, 쥐다’라는 본래의미와 이에서 비롯된 여러 파생의미들을 갖는다.

먼저 把자의 본래의미를 살펴보자. 예문은 다음과 같다.

- (6) a. 臣左手把其袖, 右手搵其胸。 (『戰國策·燕策三』)  
 왼손으로 그의 소매를 쥐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찌른다.
- b. 湯自把鉞以伐昆吾, 遂伐桀。 (『史記·殷本紀』)  
 탕(湯)은 몸소 도끼를 들고 곤오(昆吾)를 정벌하고 이어서 겐(桀)을 정벌하였다.
- c. 把酒臨風, 其喜洋洋者矣。 (范仲淹『嶽陽樓記』)  
 술잔을 들고 바람을 마주하니, 그 즐거움이 다함없구나.



(6)에서 把자는 각각 ‘소매’, ‘도끼’, ‘술잔’을 손으로 쥐거나 잡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손으로 쥐거나 잡는다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의 항목으로 나뉘는데, 손이라는 ‘도구’와 쥐거나 잡는다는 ‘행위’이다. 어떤 대상을 잡을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다. 여타의 신체부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외부의 어떤 대상의 힘을 빌릴 수도 있다. 하지만 把자의 본래의미에서의 도구는 바로 손이다. 손으로 할 수 있는 행위 또한 무수히 많다. 대상을 잡지 않고 두드리거나 칠 수도 있지만 把자는 쥐거나 잡는 일종의 통제 행위에 초점이 있다. 把자 본래의미의 항목들을 종합해

10) 최계화(2008)

11) 이동규(2012)에 따르면, 『說文解字』에 다음과 같은 글자들이 등장한다. “吏, 治人者也。从一。从史。史亦聲。(吏자는 ‘사람을 다스리는 자’의 의미이다. 一과 史는 뜻을 나타낸다. 史는 소리도 나타낸다.)” 그는 『說文解字』에서 “亦聲”이라고 언급한 경우는 회의자에서 하나의 義符가 表義의 기능을 하면서 동시에 表音의 기능도 하거나, 형성자에서 聲符가 表音의 기능도 하는 동시에 表義의 기능도 하는 것을 분류한 것이라고 하여, 형성자의 聲符가 表義의 기능을 하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說文解字』가 句에 대해서 “曲也。从口。ㄱ聲。”이라고 풀이하는데, 句가 曲의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서로 휘감겨 얹혀있다는 의미의 ㄱ聲(“相糾繚也.”)때문이라고 서술한다. 清代 단옥재(段玉裁)도 “亦聲은 會意兼形聲이다”라고 하여 위의 句자를 예로 설명하면서, 회의자와 형성자 중에 聲符의 形體가 뜻과 관계가 있으면 ‘會意兼形聲’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실제로 강해근(1996)에 의하면, 일찍이 ‘六書互兼說’이라는 이름으로 ‘形聲兼會意’뿐 아니라, ‘形聲兼象形’, ‘形聲兼指事’ 등의 다양한 互兼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4> 把자의 본래의미

 손으로 <도구>	 쥐거나 잡다 <행위>
--	---

이러한 把자의 본래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 ②~㉔의 파생의미들이 생겨난다. 새로운 의미이지만 모체(母體)인 본래의미의 의미항목들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러 파생의미들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도표5> 把자의 파생의미

본래의미 :	① 손으로	쥐거나 잡다
	↓	↓
파생의미 :	손에 중점 ② ③ ④ 13 22 23 24 25	쥐거나 잡는 행위에 중점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14 15 16 17 18 19 20 21

먼저 ‘손’에 중점을 두고 인신된 의미들을 살펴보자. ‘손으로 잡다’의 의미에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②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굵기나 크기, ③ 한 손으로 쥘 수 있는 긴 물체, ④ 한 데 엮은 묶음이 이에 속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7) a. 十圍之木始於把, 百仞之臺始於下, 此天之道也。

(『文子·道德』)

열 아람 나무도 한 손 굵기에서 시작되었고, 백 길 이 되는 대(臺)도 밑에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도(道)이다.

- b. 火把起夜色, 丁韞明齒痕。 (葉適『送呂子陽等發廩賑之』)

햇불이 밤경치를 일으키고, 징 박힌 신발이 파인 흔적을 밝히네.

- c. 二月山城無菜把。 (楊萬里『南雄邑外寄堂』)

2월의 산성(山城)에는 채소 묶음이 없구나.

더 나아가, 잡은 대상 혹은 손으로 잡은 그 자체를 세는 단위를 나타내기도 한다. ② 양사 : 한 손으로 질만한 분량, ③ 양사 : 자루가 있는 기구, ④ 양사 : 손동작 이 이에 속하고, ⑤ 양사 : 추상적인 사물과 같이 손과 관련된 추상적인 대상을 셀 때에도 사용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8) a. 乃敕各持一把茅，以火攻拔之。 (『三國志·吳志·陸遜傳』)

각각 한 줌 떠 풀을 들고 화공(火攻)으로 점령할 것을 명했다.

- b. 兩把黃傘，八把旗，四隊踹街馬。 (『儒林外史』)

두 개의 노란 우산, 여덟 개의 깃발, 네 무리의 의장(儀仗)용 말

- c. 我與他打了個賭賽，他出不得我手，卻將他一把抓住，指化五行山，封壓他在那里。 (『西遊記』)

그와 내기를 했는데, 그가 저서 그를 한손에 잡아 오행산(五行山)에 가두고자 했다.

- d. 一城里頭，只有首縣大老爺，還替我們出把力。 (『官場現形記』)

이 성(城)에서 현장(縣長)나리밖에 우리를 위해 힘을 써주실 분이 없지요.

이렇게 물건을 세는 단위에서 ‘~쯤 되는’의 ⑬ 어림수도 나타내게 되었는데, 예문은 다음과 같다.

- (9) 若是別人，千把銀子也討了。 (『警世通言·杜十娘怒沉百寶箱』)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은자 천 냥 정도 요구했을 겁니다.

이제 ‘쥐거나 잡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인신된 의미들을 살펴보자. 쥐거나 잡는 행위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에는 ⑦ 무술, 기술, 솜씨, ⑧ 진찰하다, ⑨ 뒤집다, ⑩ 부축하다, ⑪ 어린아이의 두 다리를 받쳐 들고 대·소변을 누이다,

⑫ 의형제 관계를 맺다, ⑭ 주다가 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10) a. 從來入行三日無劣把。 (『兒女英雄傳』)  
 이제까지 (그녀는) 새로운 일에 3일이 되면 그 일에 문외한은 아니었다.
- b. 我昨日請一箇太醫把脈, 那廝也說的是, 道我氣裏了食也。  
 (『冤家債主』)  
 어제 의사에게 진맥을 받았는데, 기(氣)가 음식을 감싸고 있어서 소화가 안 된다지 뭐야.
- c. 又把開天書一卷仔細看覷, 見有三十六將的姓名。(『宣和遺事』)  
 천서(天書) 한 권을 펼쳐 자세히 보더니, 36 천장(天將)의 성명(姓名)을 발견했다.
- d. 兩個把着手在那新支的床沿上坐下。 (『醒世姻緣傳』)  
 둘은 손으로 부축하면서 새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았다.
- e. 他隔幾時就須跑到那里去把嬰孩抱到外邊來把屎尿。  
 (鄒韜奮『職業婦女的苦痛』)  
 그는 몇 시간 마다 그곳에 아이를 안고 가서 대·소변을 누어야 했다.
- f. 實不相瞞, 咱倆把兄弟誰不曉得。 (『官場現形記』)  
 솔직히 말해서, 우리 둘이 의형제 맺은 사실을 누가 모를까.
- g. 況他又心慈, 見那些窮親戚, 自己吃不成, 也要把人吃; 穿不成的, 也要把人穿。  
 (『儒林外史』)  
 게다가 그는 마음씨가 고와서, 가난한 친척들을 보면 자신은 먹거나 입지 않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려한다.

즉, 무기나 도구들을 잡는 것에서 ⑦의 의미로, 환자들의 맥을 손으로 짚는 것에서 ⑧, 어떤 대상을 잡아서 뒤집는 것에서 ⑨, 손으로 잡아 부축하므로 ⑩, 어린아이를 손으로 잡아 받치는 것에서 ⑪, 서로 손을 잡아 의형제를 맺는 것에서 ⑫, 어떤 것을 손으로 쥐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에서 ⑭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어떤 대상을 쥐거나 잡는다는 의미는 그것에 대한 통제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파생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의미로는 ⑤ 관장하다, 통제하다, ⑥ 지키다, 파수보다, ⑮ 전치사: ~로 여기다, ⑯ 전치사: ~하게 하다, ⑰ 전치사: ~에서, ⑱ 전치사: 처치의미, ⑲ 전치사: ~에 대해, ⑳ 전치사: ~당하다, ㉑ 전치사: ~부터가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1) a. 然則後世誰將把齊國? (『晏子春秋』)

그러면 후세에 누가 제나라를 통치할 것인가?

- b. 洎荊州失守, 復把潼關。 (孫光憲『北夢瑣言』)

형주(荊州)가 함락되고서 다시 동관(潼關)을 지켰다.

- c. 直生初時大膽, 與劉鬼相問答之時, 竟把生人待他一般, 毫不為異。

(『二刻拍案驚奇』)

직생(直生)은 처음에 대답하여 유괴(劉鬼)와 서로 문답할 때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고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 d. 須臾間, 風狂火盛, 把一座觀音院, 處處通紅。 (『西遊記』)

잠깐 사이에 바람과 불이 거세져, 관음원(觀音院) 이곳저곳을 온통 붉게 했다.

- e. 船人把船後拋鐵錨。 (『初刻拍案驚奇』)

배사공은 배 뒤에서 쇠닻을 던졌다.

- f. 應是天仙狂醉, 亂把白雲揉碎。 (李白『清平樂』)

아마 하늘의 신선이 취하여 어지러이 백운(白雲)을 부스러뜨렸을 것.

- g. 媽媽是因為大哥娶了親, 唬怕了的, 所以把二哥哥的事也疑惑起來。

(『紅樓夢』)

엄마는 큰형이 장가간 것에 놀라셨는지 둘째형의 일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다.

- h. 這明明是天賜我兩個橫財, 不取了他的, 倒把別人取了去。

(『殺狗勸夫』)

이는 분명 하늘이 준 두 개의 횡재이니, 취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해 취해질 거야.

- i. 夏侯惇敗了必把你手內過也! (『三國志平話』)

하후돈(夏侯惇)이 패했으니 반드시 너의 손 안으로 지나갈 것이다!

⑤는 통제와 장악 그 본연의 의미이고 ⑥ 또한 통제의 일환이다. 이러한 통제권을 얻어 ⑮ 대상을 어떻게 여길지, ⑯ 어떻게 하게 할지, ⑰ 어디에 있게 할지, ⑱ 어떻게 처치할지, ⑲ 범위를 어떻게 한정할지, ⑳ 대상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할지, ㉑ 시작점을 어디로 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把자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아우르는 개념 즉, 把자의 원형적 의미를 도출해보자. 먼저 ‘손’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신체 부위 중 손이 하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직접(直接)적이다. 다음 예문을 보자.

(12) a. 나는 열아홉 살부터 서울로 과거 보러 다니고 그리고 내 손으로  
자수성가했다. (한설야 『탑』)

b. 또 내 손으로 사 년 동안 가르친 아이들이 아니오?  
(이광수 『유정』)

(12)는 공통적으로 ‘직접’ 어떤 일을 했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여기에서 손은 다른 어떤 수단보다 효과적으로 그 의미를 전달한다. 이처럼 손은 ‘직접성’을 전제로 한다. 다음은 ‘쥐다, 잡다’의 의미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쥐거나 잡는 행위는 통제와 장악으로 설명될 수 있으니, 쥐거나 잡는 것은 ‘통제성’을 상징한다. 종합해보면, 把자의 원형적 의미는 직접성과 통제성이 결합된 ‘직접적 통제’로 도출해낼 수 있다.

### 2.1.2 把자문의 사동의미

이제 앞 소절에서 도출한 把자의 원형적 의미가 현대중국어 把자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사세동당(四世同堂)』에 출현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다.

(13) a. 他敢和上司们挑战划拳, 而毫不客气的把他们战败。

그는 윗분들과 화권(劃拳)놀이를 했는데, 예의 없이 그들을 지게

했다.

- b. 他们比较了一下他们的纪录, 而后把大家集合在一处, 从头儿考问。

그들은 기록을 비교한 후 모두를 한 곳에 모이게 하고는 처음부터 다시 물었다.

(13a)의 ‘그’는 그들을 지게 한 사동자이며 ‘그들’은 이를 당한 피사동자이다. (13b)의 ‘그들’은 모두를 모이게 한 사동자이며 ‘모두’는 모이게 된 피사동자이다. 그가 윗분들과 화권놀이를 한 결과 그들이 지게 되었고, 그들이 기록을 비교한 결과 모두가 한 곳에 모이게 되었다. 이들은 사동자와 피사동자가 모두 생명이 있는 유정물(有情物)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유정물이 유정물에게 강력한 힘(致使力)을 가하여 어떠한 결과가 생겨났다.

여기에서 把자의 의미기능을 살펴보자. (13a)에서 把자를 제외했을 때 ‘그는 윗분들과 화권놀이를 한다’와 ‘그들이 졌다’가 의미적으로 분리되지만, 직접적 통제성을 지닌 把자를 통해 ‘그’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비록 윗분들이지만 그는 그들과 싸워서 이겼고 그들은 그의 힘에 지배되었다. (13b)도 把자로 인해 ‘그들’이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통제권이 살아난다. 그들은 강한 장악력으로 모두를 움직이게 했고, 모두는 그 힘에 종속되어 한 곳에 모이게 된다. 이처럼 유정물과 유정물 사이에서 把자문의 사동성은 매우 강력하게 나타난다.<sup>12)</sup>

다음은 사동자는 유정물이지만 피사동자는 생명이 없는 무정물(無情物)인 경우이다.

- (14) a. 说的时候, 他把脸都气红了, 又是搓拳, 又是磨掌的。

이야기할 때 그는 화가 나서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주먹을 비벼대며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하였다.

- b. (军人)一方面实行劫抢, 先把他们的衣袋装满了金银。

한 방면에서는 약탈을 진행하되, 먼저 그들의 주머니를 금은(金銀)으로 가득 차게 했다.

12) 張碧純(2008)은 현대중국어의 사동의 연속성(causative continuum)을 다음과 같은 도표로 제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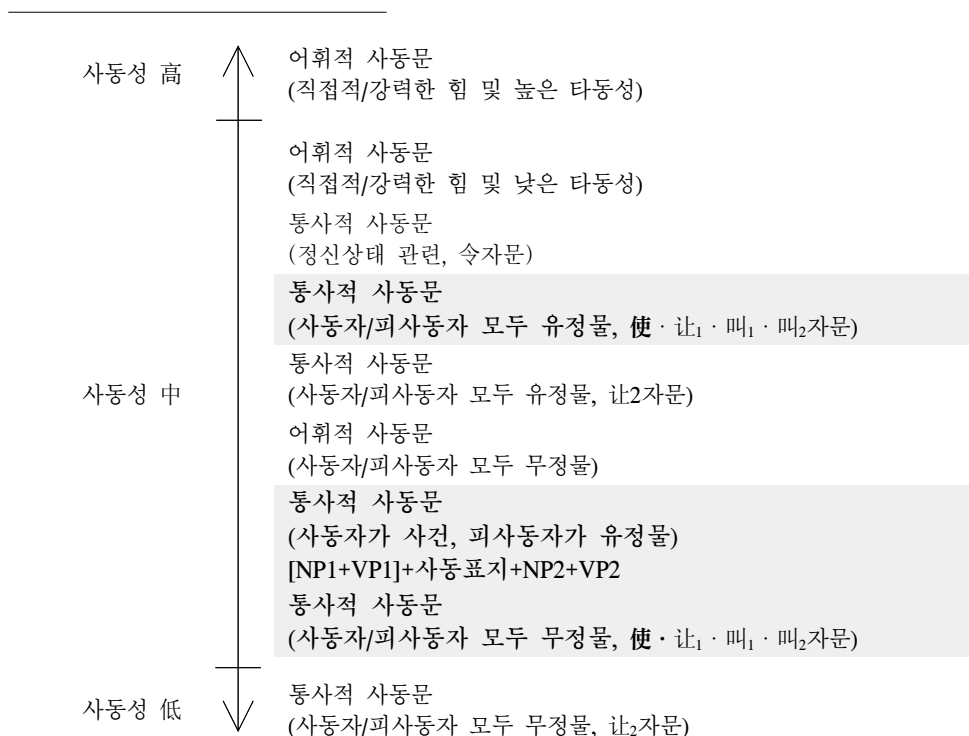
(14a) 역시 把자 없이는 ‘그가 화가 났다’와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의미적으로 결합되기 어렵다. 하지만 직접적 통제성을 지닌 把자를 통해 ‘그’는 ‘얼굴’에 일종의 장악력을 갖게 된다. 그는 그의 얼굴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며, 그의 얼굴은 화가 난 그의 힘에 지배될 수 있다. (14b)도 把자를 통해 ‘군인’이 ‘그들의 주머니’에게 행사하는 통제권이 살아나게 된다. 군인은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주머니를 지배 및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그들의 주머니는 그 힘에 종속된다.

하지만 피사동자가 무정물인 만큼 유정물에 비해 사동성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즉, 그가 ‘얼굴’보다는 ‘그녀’와 같은 유정물을 통제하는 것이, 군인이 ‘그들의 주머니’보다는 주머니의 소유자인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

다음은 사동자가 무정물이고, 피사동자는 유정물인 경우이다.

(15) a. 一阵微风, 把他吹醒。

미풍이 불어 그를 깨어나게 했다.



이는 사동자와 피사동자의 유·무정성이 사동성의 강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고는 把자문의 사동성 분석과 유·무정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더하여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b. 这, 把老三问住了。

이것은老三을 말문이 막히게 했다.

把자의 의미기능을 살펴보면, (15a)에서 把자는 ‘미풍’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게 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그 힘에 지배된 그는 결국 깨어나게 된다. (15b)도 직접적인 통제성을 지닌 把자로 인해 ‘이것’이 ‘老三’에게 강력히 작용하게 되고 ‘老三’은 ‘이것’에 의해 지배되어 결국 말문이 막히게 된다.

하지만 사동자가 무정물인 만큼 유정물에 비해 사동성이 낮다. 즉, ‘미풍’이 아닌 ‘그녀’가 그를 깨우고, ‘이것’이 아닌 ‘老二’이老三을 말문 막히게 하는 것이 더 강한 사동성을 갖는다. 또한, 이 경우 피사동자가 무정물인 경우보다 사동력이 확보되기 어려운데, 이는 사동자의 지배력을 핵심으로 하는 把자의 의미 특징에서 비롯된다.

마지막으로, 사동자와 피사동자 모두 무정물인 경우를 살펴보자.

(16) a. 这一声“姐”, 把她几个月来的坚决与挣扎仿佛都叫散了!

“언니”라는 소리는 그녀의 몇 개월간의 결연함과 몸부림을 모두 흩어지게 했다.

b. 冰凉的小风一会儿便把她的鼻尖冻红。

차가운 바람이 곧 그녀의 코끝을 붉게 했다.

(16a)에서 직접적 통제성을 지닌 把자를 통해 ‘언니라는 소리’는 ‘그녀의 결연함’을 장악하게 되고 굳센 그녀의 결연함은 끝내 언니라는 소리에 종속되어 모두 흩어지게 된다. (16b)도 把자로 인해 ‘바람’이 ‘그녀의 코끝’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녀의 코끝은 결국 그 힘에 지배되어 붉어지게 된다. 그러나 사동성의 강도(強度)면에서 사동자와 피사동자가 모두 무정물인 만큼 사동성이 가장 약하다.

사동자와 피사동자의 유·무정성에 따른 사동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lt;도표6&gt; 사동의미 把자문의 사동성

피사 동자	유정물	中弱	強
	무정물	弱	中強
		무정물	유정물
		사동자	

## 2.2 使자의 ‘능동적 순응성’과 使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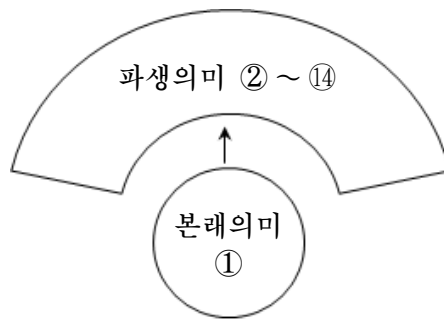
### 2.2.1 使자의 ‘능동적 순응성’

이제 使자의 의미들을 살펴보자. 『漢語大詞典』에서는 다음과 같이 14개의 의미들을 제시한다.

- |  |                   |
|--|-------------------|
| ① 파견하다(派遣)   | ⑧ 노복이 하는 일(僕役)    |
| ② 명령, 명령하다(命令)                                     | ⑨ ~하게 하다(致使, 让)   |
| ③ 시키다, 부리다(役使, 使喚)                                 | ⑩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放纵) |
| ④ 구사하다, 지배하다(驱使, 支配)                               | ⑪ 접속사 : 가령(假使)    |
| ⑤ 사용하다, 운용하다(使用, 运用)                               | ⑫ 관직명(官名)         |
| ⑥ 농락하다(耍弄)   | ⑬ 사신으로 나가다(出使)    |
| ⑦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동작을<br>하거나 표정을 짓다<br>(做引起对方注意的动作或表情) | ⑭ 사자, 외교관(使者)     |

이는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

&lt;도표7&gt; 使자의 의미



하지만 이는 使자의 의미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일 뿐, 각 의미사이의 간격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⑩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와 ⑬ ‘사신으로 나가다’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찾는 일은 쉽지 않으며, ⑤ ‘사용하다’와 ⑫ ‘관직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렇듯 使자 또한 의미적 연관성이 낮은 여러 의미들이 한 단어 안에 공존한다. 이제 그 안에 작용하는 원리에 접근하고자, 使자의 본래의미로 돌아가 여러 의미들을 아우르는 使자의 원형적인 의미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使자의 모습은 갑골문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자형은 다음과 같다.



즉, 使자는 갑골문에서부터 본래 使자로 사용되었다. 使자는 손에 도구를 들고 일하는 모양을 본뜬 글자로, 事자와 史자의 본자(本字)이기도 하다. 즉, ‘일하다’라는 使자의 기본 의미에서 ‘일’을 의미하는 事자가 생기고, 많은 종류의 일 중에서 손에 붓을 들고 기록하는 史자, 모종의 임무를 받고 파견된 使자 등 일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글자들로 분화되었다.<sup>13)</sup> 使자의 현재 자형은 晚期金文<sup>14)</sup>에서 나타나며, 『說文解字』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13) 양동숙(2005)

14) 출처는 전국(戰國)시대 저초문(詔楚文)으로, 진(秦)나라 혜문왕(惠文王)이 신에게 초(楚)나라의 죄상을 고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총 세 개의 돌에 새겨져 있는 석각문자이다. 김현철·김시연(2011).

# 使

使, 伶也。从人吏聲。疏土切。

使자의 의미를 ‘명령하다’<sup>15)</sup>로 설명한 점과 使자를 ‘형성자(形聲字)’로 밝힌 점을 주목해 보자. 해설대로 人자가 의미를 나타내고 吏자가 소리를 담당한다면, ‘사람’이라는 의미만으로도 ‘명령하다’의 의미가 설명될 수 있어야 하지만 부족한 일면이 있다. 吏자의 표의(表義)기능을 생각해 보면, 吏자는 앞서 설명했듯 ‘일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고 使자는 수많은 일 중 파견된 일을 나타낸다. 즉, 使자는 ‘사람(人)’이라는 의미에 파견되어 ‘일하다(吏)’의 의미가 더해져 ‘사람을 파견하다’, ‘사람에게 파견을 명하다’, ‘파견된 사람’ 등을 의미하게 되었다. 수많은 의미들 중 ‘사람’의 의미가 포함된 것은 使자가 일을 하는 사람, 임무를 받고 파견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使의 본래의미인 ‘파견하다’의 의미를 살펴보자.

- (17) a. 乃使蒙恬北築長城而守藩籬。 (『過秦論』)

이에 몽염(蒙恬)을 북(北)으로 파견해 장성(長城)을 지어 경계를 지키게 했다.

- b. 鄭伯使祭足勞王, 且問左右。 (『左傳·桓公』)

정백(鄭伯)은 제족(祭足)을 왕에게 보내 위문하게 하고, 그 주위 사람에게도 안부를 묻게 했다.

- c. 其食客三千人, 邑入不足以奉客, 使人出錢於薛。

(『史記·孟嘗君列傳』)

그食客이 3천명으로 식읍(食邑)의 수입이 부족하여, 사람을 보내 설(薛) 땅에서 돈을 받아 오게 했다.

(17)에서 使자는 공통적으로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파견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단순히 대상을 파견했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는다. (17a)는 몽염을 파견한 사실

15) 단옥재(段玉裁)의 주(註)에 의하면 ‘伶’은 ‘令’의 오자(誤字)이며 명령하다(發號)의 의미를 지닌다. (大徐令作伶。誤。令者, 發號也。)

보다, 파견에 순응하여 북으로 가서 장성을 짓고 경계를 지키는 몽염의 모습이 강조된다. (17b)도 정백이 제족을 보낸 사실 보다, 파견되어 왕을 위문하고 그 주위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제족의 행동에 초점이 있다. (17c)에서도 맹상군(孟嘗君)이 사람을 보낸 사실보다, 파견에 순순히 응하여 설 땅에서 돈을 받아오는 그 사람의 행위에 관심이 있다. 이처럼 使자에는 원시 자형에서 보여주는 사람(人) 즉, 그 대상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난다. 使자 본래의미의 항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lt;도표8&gt; 使자의 본래의미

人 사람을 <대상>	吏 파견하다 <행위>
------------------	-------------------

이러한 使자의 본래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파생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t;도표9&gt; 使자의 파생의미

본래의미 :	① 사람을	파견하다
	⇓	⇓
파생의미 :	대상에 중점 ⑫ ⑬ ⑭	파견 행위에 중점 ② ③ ④ ⑤ ⑥ ⑦ ⑨ ⑩ ⑪

우선, 파견된 대상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 파견된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⑫ 관직명 ⑬ 사신으로 나가다 ⑭ 사자, 외교관의 의미가 그것이다.

(18) a. 使君從南來, 五馬立踟躕。 (『樂府詩集·陌上桑』)

사군(使君)<sup>16)</sup>이 남쪽에서 오니, 다섯 마리의 말이 서서 머뭇거렸다.

16) 한대(漢代) 태수자사(太守刺史)의 호칭. 『漢語大詞典』.

- b. 行己有恥, 使於四方, 不辱君命, 可謂士矣。 (『論語·子路』)  
 행동하는 데에 염치가 있고 사방에 사신으로 나가 군왕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으면 선비라 할 만하다.
- c. 梁使三反, 孟嘗君固辭不往也。 (『戰國策·齊策』)  
 양혜왕(梁惠王)의 사자(使者)가 세 번이나 갔지만, 맹상군(孟嘗君)은  
 거듭 사양했다.

다음은 파견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파생된 의미들이다. ② 명령, 명령하다 ③ 시키다, 부리다 ⑨ ~하게 하다는 의미와 명령의 한 종류로 ⑧ 노복이 하는 일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 (19) a. 懷王使屈原造爲憲令。 (『史記·屈原列傳』)  
 회왕(懷王)은 굴원(屈原)에게 법령을 만들도록 명했다.
- b.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論語·學而』)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백성을 부릴 때에는 시기를 잘 맞춘다.
- c. 不以一己之利爲利, 而使天下受其利。 (黃宗羲『原君』)  
 자기 한 몸의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이익  
 을 누리게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명령하고 시키는 그 상황 자체이기 보다, 오히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채 다음 행동을 해나가는 ‘대상’의 모습이다. 즉, (19a)의 회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법령을 만드는 굴원의 모습, (19b)의 시기를 잘 맞춰서 부림당하기를 원하는 백성, (19c)의 그 이익을 함께 누릴 온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핵심이 있다.

또한, 명령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④ 구사하다, 지배하다 ⑤ 사용하다, 운용하다 ⑥ 농락하다 ⑦ 상대방의 주의를 끄는 동작을 하거나 표정을 짓다 ⑩ 거리낌 없이 행동하다 ⑪ 접속사: 가령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20) a. 使雞司夜, 令狸執鼠, 皆其用能, 上乃無事。 (『韓非子·揚權』)  
 닭은 밤을 맡도록 하고 승냥이는 쥐를 잡도록 하면 모두 능력을

사용하니 군주(君主)는 일이 없습니다.

- b. 使功不如使過。 (『舊唐書·李靖傳』)

공(功)이 있는 사람을 쓰기 보다는 과오(過誤)가 있는 사람을 써라.

- c. 他還要忙里偷閑, 苦中作樂, 使促狹, 弄低心, 無所不至。  
(『醒世姻緣傳』)

그는 바쁜 중에도 게으름을 피우고, 고생 중에도 즐거움을 찾고, 교활한 일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으며, 못하는 것이 없다.

- d. 因向婦人使手勢, 婦人就知西門慶來了。 (『金瓶梅詞話』)

부인을 향해 손짓을 했기 때문에 부인은 서문경(西門慶)이 온 줄 알았다.

- e. 膽狂心醉, 使作得不顧危亡, 便胡做。 (『西廂記諸宮調』)

미쳐서 생사존망(生死存亡)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일을 멋대로 처리한다.

- f. 使死者無知, 則已矣; 若其有知, 吾何面目以見員也。

(『國語·吳語』)

만약 죽은 이가 모르면 그만이지만, 만약 안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너를 만나리.

명령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관리하고 배치하며 감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④의 의미가 생겨나고, 그러한 권한으로 어떠한 대상을 ⑤ 사용하고 ⑥ 농락하기도 하며, ⑦ 주의를 끌고자하고 ⑩ 거리낌 없이 행동하며, ⑪ 만약의 미래를 가정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의미들은 권한을 행사하는 측보다 오히려 권한에 순응하는 대상에 관심을 둔다. (20a)는 밤을 맡은 닭과 쥐를 잡은 승냥이에, (20b)는 공이 있는 사람과 과오가 있는 사람에게, (20f)는 사실을 모를지도 모르는 죽은 이에게 초점이 있다. 또한 권한을 가진 주체 보다는 (20c)의 교활한 그 일, (20d)의 주의를 끄는 그 행위, (20e)의 멋대로 처리하는 그 일이 더욱 돋보인다.

把자에 강력한 ‘직접적 통제성’이 있다면, 使자에는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명령을 받으면 복종하고, 통제에 묵묵히 순응하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기서의 순응이란, 연약한 수동성의 개념이기보다, 비록 종속되었지만 잠재된 힘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지니는 ‘능동성’의 개념이다.

그렇다면 이제 使자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아우르는 원형적 의미를 도출해 보자. 먼저 ‘사람(人)’의 의미를 살펴보면, 세상 만물 중 사람이 하는 역할은 무엇보다도 능동(能動)적이다. 다음은 국립 국어원(<http://www.korean.go.kr/>)에서 제공하는 『표준 국어대사전』과 『漢語大詞典』에서 풀이하는 사람(人)의 정의이다.

(21) 사람: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어 사는 동물

人 : 能製造和使用工具進行勞動, 並能用語言進行思維的高等動物。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여 노동을 할 수 있으며, 언어를 사용하여 사유할 수 있는 고등동물

‘생각하다’, ‘사유하다’, ‘언어를 사용하다’,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다’, ‘사회를 이루다’, ‘노동하다’는 표현은 모두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처럼 사람은 ‘능동성’을 전제로 한다. 다음은 ‘일하다(吏)’의 의미이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使자의 ‘일하다’의 개념은 ‘파견하다’로 드러나고 그에 따라 명령하다, 시키다와 같은 많은 의미들이 파생된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把자와 같이 통제하고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에 순응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지에 초점이 있다. 즉, 일하다는 ‘순응성’을 상징한다. 종합해보면, 使자의 원형적 의미는 능동성과 순응성이 결합된 ‘능동적 순응’으로 도출해낼 수 있다.

## 2.2.2 使자문의 사동의미

이제 앞 소절에서 도출한 使자의 원형적 의미가 현대중국어의 使자문<sup>17)</sup>에서 어

17) 宛新政(2004)은 使자를 전형적인 전치사로 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제시한다. 1) 통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사동대상의 앞에 위치 2) 통사상의 독립성이 없다는 점: 다른 성분들과 함께 전치사구를 이룸 3) 긍정·부정의 병렬로 의문문을 만들 수 없고, 단독으로 대답할 수 없다는 점 4) 상표지가 없고 중첩할 수 없으며 동태조사 “了, 着, 過” 등이 올 수 없다는 점 5) 목적어를 갖는 술어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6) 일반적으로 강세가 있을 수 없는 점이다. 使자를 동사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본고는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 의미를 비교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므로 분석대상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使자의 품사를 把자와 같은 전치사로 보고 논의를 진행한다.



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자. 다음은 『四世同堂』에 출현하는 使자문이다.

- (22) a. 你把事情全交给我好了, 我一定会办得使你满意。  
저에게 일을 맡기시면, 제가 반드시 당신이 만족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 b. 她将照着孟石的样子把他教养大, 使他成为有孟石的一切好处。  
그녀는 孟石처럼 그를 키워서 그가 孟石의 좋은 점을 모두 지니게 할 것이다.

(22a)에서 ‘나’는 당신을 만족하게 하는 사동자이고, ‘당신’은 나의 일처리로 인해 만족하게 되는 피사동자이다. 내가 이 일을 맡아 처리한 결과, 당신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내가 당신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이 아닌, 당신이 나의 영향력에 종속되어 만족하게 되는 능동적인 결과이다. (22b)의 ‘그녀’는 아들이 孟石의 좋은 점을 지니게 한 사동자이고, ‘그’는 孟石의 좋은 점을 지니게 될 피사동자이다. 그녀가 孟石처럼 아들을 잘 키운 결과, 그가 孟石의 좋은 점을 지니게 하는 것이 그녀의 바람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녀가 아들에게 가할 통제가 전부는 아니다. 아들이 그녀의 통제에 잘 순응하여 孟石의 좋은 점을 지니게 되는 능동적 행동이 뒤따라야한다. 즉, 두 문장 모두에서 使자는 대상의 순응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

또한 두 문장은 모두 사동자와 피사동자가 유정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유정물이 유정물로 하여금 어떤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경우 사동성의 강도가 가장 높다.

다음은 사동자는 유정물이고 피사동자가 무정물인 경우이다.

- (23) a. 他们会使美的东西更美一些。  
그들은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다.
- b. 冠晓荷今天决定使它复活!  
冠晓荷는 오늘 중국을 다시 살리겠다고 결심했다.

(23a)에서 ‘그들’은 좋은 것을 더 좋게 하는 사동자이고, ‘좋은 것’은 더 좋아지

게 되는 피사동자이다. 그들이 출중한 능력을 가진 결과 좋은 것이 더 좋게 되었다. 물론, 그들이 좋은 것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좋은 것이 그들의 영향 하에서 더 좋아지는 능동적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23b)의 ‘冠曉荷’는 중국을 다시 살게 하는 사동자이다. 그리고 ‘중국’은 다시 살게 되는 피사동자이다. 冠曉荷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결과 중국을 다시 살리는 것이 그가 결심한 내용이다. 冠曉荷가 중국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그것을 살리고자 하지만, 여기서 중심이 되는 것은 그 통제 자체가 아닌 그 힘에 순응하고 다시 살게 되는 중국의 능동적인 모습이다.

그러나 두 문장 모두 피사동자가 무정물인 만큼 유정물에 비해 사동성이 낮다. 즉, ‘좋은 것’보다는 ‘좋은 사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중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실의에 빠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더 강한 사동성을 갖는다.

이제 사동자가 무정물이고 피사동자는 유정물인 경우를 살펴보자.

(24) a. 这, 使她得到不少的温暖。

이 일은 그녀가 적지 않은 따뜻함을 얻게 했다.

b. 这样的祷告, 有时候使他觉得心里舒服一点。

이런 기도는 때때로 그를 마음 편하게 해준다.

(24a)와 (24b)의 ‘이 일’과 ‘이런 기도’는 각각 그녀가 따뜻함을 얻게 하고,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동자이다. 그리고 ‘그녀’와 ‘그’는 각각 따뜻함을 얻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게 된 피사동자이다. 즉, 이 일이 발생한 결과 그녀가 따뜻함을 얻었고, 기도를 한 결과 그가 마음 편히 되었다. 이 일이 그녀에게 미치는 영향력과 기도가 그에게 갖는 통제력은 물론 존재한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이 일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 따뜻함을 얻게 되었고, 그가 기도의 통제력에 순응하여 마음이 편해진 능동적 상태가 된 사실이다. 즉, 두 문장 모두에서 使는 대상의 순응성과 능동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두 문장 모두 사동자가 무정물인 만큼 유정물에 비해 사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즉, 그녀가 ‘이 일’이 아닌 ‘그’에게 순응하는 것과, 그가 ‘기도’가 아닌 ‘어머니’에게 순응하는 것이 더 강한 사동성을 지닌다. 하지만 피사동자에 의미적 초점을 두는 使자의 특징으로 보았을 때, 사동자가 무정물인 경우가 이 경

우보다 더 능동적이다.

마지막으로 사동자와 피사동자가 모두 무정물인 경우이다.

(25) a. 可是女儿的哭声使他的眼失去了控制泪珠的能力。

하지만 딸의 울음소리가 그의 눈이 눈물을 제어하는 능력을 잃게 했다.

b. 他知道中日的战争必定会使世界的地理与历史改观。

그는 중일전쟁이 세계의 지리와 역사를 변모하게 할 것을 알았다.

(25a)에서 ‘딸의 울음소리’는 그가 눈물을 제어하지 못하게 하는 사동자이고, ‘그의 눈’은 눈물을 제어하지 못하게 된 피사동자이다. 즉, 딸의 울음소리를 들은 결과 그의 눈은 눈물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다. 딸의 울음소리가 그의 눈에 작용하여 눈물을 제어하지 못하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핵심은 그의 눈이 울음소리에 지배되어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또한 (25b)의 ‘중일전쟁’은 세계의 지리와 역사를 바꾸게 할 사동자이며, ‘세계의 지리와 역사’는 변모하게 될 피사동자이다. 즉, 중일전쟁이 발발한 결과 세계의 지리와 역사가 변모하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다. 여기에서의 초점은 중일전쟁이 세계 지리와 역사에 미치는 영향력이기 보다, 그 영향을 받은 세계의 지리와 역사가 결국 변모하게 되는 능동적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문장은 사동자와 피사동자가 모두 무정물이므로 사동성의 강도가 가장 약하다.

사동자와 피사동자의 유·무정성에 따른 使자문의 사동성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표10> 使자문의 사동성

피 사 동 자	유정	中强	强
	무정	弱	中弱
		무정	유정
		사동자	

## 2.3 힘 역학(Force Dynamics) 이론으로 본 사동의미

이제까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본질적인 의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소절은 두 문형의 의미 차이를 가시화하고자 Talmy<sup>18)</sup>(1988)의 힘 역학(Force dynamics)<sup>19)</sup>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두 문형의 사동의미를 비교한다. 힘 역학은 다음의 네 가지 기본적 의미자질로 나뉜다.

<b>힘 개체</b> ㄱ. 주동체(Agonist) : ○ ㄴ. 반동체(Antagonist) : □	<b>힘의 내재적 경향</b> ㄱ. 활동 경향(toward action) : > ㄴ. 정지 경향(toward rest) : ●
<b>힘의 균형</b> ㄱ. 더 강한 개체(stronger entity) : + ㄴ. 더 약한 개체(weaker entity) : -	<b>힘 상호작용의 결과</b> ㄱ. 활동(action) : —————>————— ㄴ. 정지(rest) : —————●—————

첫째, 힘이 상호 작용하는 두 개체 중 초점이 되는 힘 개체를 주동체(Agonist)라고 하고, 주동자에 반대되는 힘 요소를 발휘하는 개체를 반동체(Antagonist)라고 한다. 둘째, 각 개체의 힘의 내재적 경향에 따라, 활동(action) 경향과 정지(rest) 경향으로 구분된다. 셋째, 주동체와 반동체 간의 상대적 힘 크기에 따라 더 강한 개체와 더 약한 개체로 나뉜다. 넷째, 상반되는 두 힘이 상호 작용한 후 주동체가 갖게 되는 결과에 따라 활동과 정지로 나뉜다. 이러한 기본자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지속 상태(steady state)의 4가지 기본 도식을 나타낼 수 있는데<sup>20)</sup>, 그 형태는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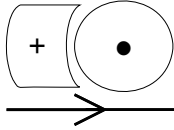
18) 1970년대부터 언어와 인지 현상에 관한 중요한 논저들을 발표하면서 Langacker, Lakoff, Fillmore 등과 함께 인지 언어학에서 큰 이론적 축을 이루고 있다.

19) 힘 역학(Force dynamics)이란 일반적으로 개체들 간의 힘의 상호 작용을 다루는 의미범주를 일컫는다. 전통문법에서 힘 역학의 인식은 주로 ‘사동(causing)’ 개념에 나타나는데, Talmy는 힘 역학 이론을 통해 사동에 대한 전통적인 언어학 개념을 의미적으로 일반화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사동의 경우를 힘 역학 이론에 첨가하는 것이 아닌, 사동 개념을 더 세분화된 의미자질로 분석하여 사동 개념에 대한 더 일반적이고 체계적인 모델을 제공하였다. 이기동(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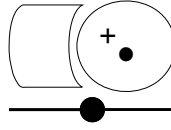
20) Talmy(1988)는 지속 상태(steady state)의 힘 역학 도식과 함께 비지속(shifting) 상태의 힘 역학 도식도 함께 제시하는데, 비지속 상태의 도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주동체와 반동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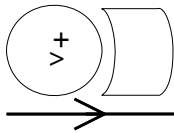
(26)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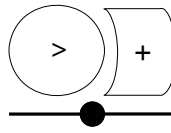
b.



c.



d.



(26a)는 더 강한 힘(+)을 가진 반동체가 본래 고유의 정지 경향(●)을 가진 주동체와 대립상태에 놓여 있다. 정지하려는 주동체에 더 큰 힘을 가진 반동체가 작용한 결과 주동체는 그 본래의 힘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움직이게 된다. (26b)에서는 주동체가 정지(●)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반동체가 힘을 가하고 있지만 반동체의 힘보다 주동체의 힘이 더 커서 주동체는 그 내재된 성향을 나타낼 수 있고 그곳에 정지해 있게 된다. (26c)에서 주동체의 본래 경향은 활동(>)이다. 비록 그에 대립하는 반동체의 힘이 존재하지만 주동체가 더 강해서(+) 주동체가 가지고 있는 힘의 경향은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즉, 반동체는 주동체의 움직임을 막지 못하고 주동체의 본래의 힘의 경향대로 된다. 마지막으로, (26d)의 경우 주동체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반동체의 힘이 더 강해서(+) 주동체를 방해한다기보다 오히려 주동체의 움직임을 막고 있다. 따라서 주동체는 그곳에 정지해 있게 된다.<sup>21)</sup>

체 간에 서로 지속적으로 힘이 작용·반작용되기보다는 주동체에 힘을 갑자기 주기 시작하거나 제거하는 요인이 첨가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본 소절은 가장 기본이 되는 지속 상태의 도식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21) 김종영(2003)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의식되지 않는 영어 어휘들 간의 사소한 의미차이가 교학상의 어려움을 야기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힘 역학 이론을 통해 영어의 사역동사로 분류되는 ‘make’, ‘let’ 등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고는 중국어도 중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유 속에 사동의미들 간의 일정한 의미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보고,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차이를 힘 역학 이론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이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을 이에 적용하여, 把자와 使자의 원형적 의미가 반영된 두 문형이 힘 역학 도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 2.3.1 힘 역학 이론으로 본 사동의미의 把자문

다음은 『四世同堂』에 등장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다.

(27) a. 我怕出去早了会把他吓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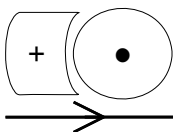
나는 일찍 나가서 그를 놀라 도망가게 할까봐 두렵다.

b. 他们把小顺儿撞倒。

그들은 小顺儿을 부딪쳐서 넘어지게 했다.

(27)에서의 주동체는 피사동자인 ‘그’와 ‘小顺儿’이고, 반동체는 사동자인 ‘나’와 ‘그들’이다. (27a)는 통제권을 지닌 나와 가만히 있으려는 그가 대립상태에 있다. 하지만 결국 더 강력한 힘을 지닌 내가 그를 도망가게 하고, 정지경향의 그는 본래의 힘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27b)는 더 큰 힘을 지닌 그들이 가만히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는 小顺儿과 대립상태에 있다. 하지만 이내 그들은 小顺儿에 대한 통제력으로 그를 부딪쳐서 넘어지게 하고, 가만히 있으려는 小顺儿的 의도는 좌절된다. 즉,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동체와 본래 정지하려는 경향을 지닌 주동체가 대립상태에 놓여있지만 반동체가 강력한 힘으로 정지하려는 주동체에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해, 결국 주동체 본래의 경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움직이는 형태로 다음의 도식으로 표현된다.

<도표11> 사동의미 把자문의 힘 역학 도식①



다음과 같은 사동의미의 把자문도 있다.

- (28) a. 他开始有点后悔, 不该为闲扯而把自己弄得进退两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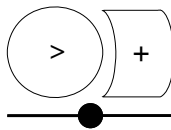
그는 노닥거리느라 자신을 진퇴양난하게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후회하기 시작했다.

- b. 瑞丰的一拳把他打闭住了气。

瑞丰의 주먹 한 대가 그를 숨이 멎게 하였다.

(28)에서의 주동체는 피사동자인 ‘자기’와 ‘그’이고, 반동체는 사동자인 ‘그’와 ‘瑞丰’이다. (28a)는 힘이 더 강한 반동체인 그가 움직이려는 주동체인 자신과 대립상태에 있지만 결국 더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그가 자신을 진퇴양난으로 꼼짝 못하게 하고, 활동경향의 자신은 본래의 힘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또한, (28b)에서 더 큰 힘을 지닌 반동체 瑞丰은 숨을 쉬는 움직임을 유지하려는 그와 대립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이내 瑞丰은 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력으로 주먹으로 때려 숨이 멎게 하고, 숨을 계속 쉬려는 활동경향의 그의 의도는 좌절된다. 즉,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반동체와 본래 활동하고자 하는 경향을 지닌 주동체가 대립상태에 놓여있지만 반동체가 강력한 힘으로 활동하려는 주동체에 직접적인 통제력을 가해, 결국 주동체 본래의 움직이고자 하는 경향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지하게 되는 형태로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도표12> 사동의미 把자문의 힘 역학 도식②



### 2.3.2 힘 역학 이론으로 본 使자문

다음은 『四世同堂』에 등장하는 使자문의 예이다.

- (29) a. 他应当给大家说些乐观的话, 使他们得到点安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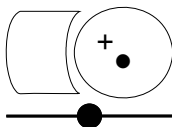
그는 모두에게 낙관적인 말을 해서 그들이 위안을 얻게 해야 한다.

- b. 天安门的庄严尊傲使他们沉默。

천안문의 장엄과 존귀와 자부가 그들을 침묵하게 했다.

(29a)에서 주동체는 피사동자인 ‘그들’이고 반동체는 사동자인 ‘그’이다. 주동체인 그들은 반동체인 그가 하는 말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내재된 큰 힘을 지닌 주동체는 그 영향에 순응하여 능동적으로 위안을 얻는 심리적 정지 상태에 이른다. 또한 (29b)에서 주동체는 ‘그들’이고, 반동체는 ‘천안문의 장엄과 존귀와 자부’이다. 주동체인 그들은 반동체에게 통제당하지만, 내부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만한 큰 잠재력을 지녀 통제에 순응하고 이내 주체적으로 침묵하고자 하는 정지경향을 실현시킨다. 즉, 使자문은 더 강한 내재적 힘을 지닌 주동체가 반동체의 통제력을 받기는 하지만 그 영향에 순응하고 보다 능동적으로 정지하고자하는 방향을 유지하게 되는 형태로 다음의 도식과 같이 표현된다.

<도표13> 使자문의 힘 역학 도식①



또한 다음과 같은 使자문도 있다.

(30) a. 只有酒能使他高兴起来。

술만 있으면 그를 기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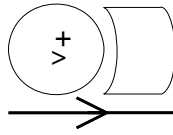
b. 他的残余的一点力气, 只够使他往前爬几步的。

그의 남은 기력은 그를 앞으로 몇 보 기어가게 할 정도뿐이었다.

(30a)에서 주동체인 ‘그’는 반동체인 ‘술’의 영향을 받지만 내재적인 큰 힘으로 기쁜 상태 즉, 심리적 활동 상태에 능동적으로 이르게 된다. 또한 (30b)에서 주동체인 ‘그’는 반동체인 ‘남은 기력’에 의해 통제되지만, 내부에 수동적으로 휘둘리지 않을 정도의 큰 잠재력을 갖고 있어서, 이에 순응한 채 주체적으로 기어가자 하는 활동 경향을 유지한다. 즉, 더 강한 내재적 힘을 지닌 주동체가 반동체의 통제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에 순응하고 보다 주체적으로 활동 경향을 실현시키는 형태로 도식은 다음과 같다.



&lt;도표14&gt; 使자문의 힘 역학 도식②



## 2.4 소결

이제까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을 의미론적으로 비교하고자 다음의 세 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단어의미 분석이다. 把자와 使자의 본래의미와 파생의미들을 살펴보고 그것들을 아우르는 원형적 의미를 각각 ‘직접적 통제’와 ‘능동적 순응’으로 도출해내었다. 두 단어의 의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lt;도표15&gt; 두 문형의 단어의미 비교

把 把		對	使 使	
手 手	巴 巴		人 人	吏 吏
손으로	잡다, 쥐다		사람을	파견하다
↓	↓		↓	↓
직접적	통제		능동적	순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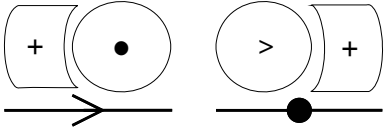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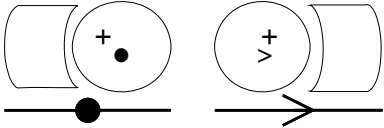
둘째, 문장의미 분석이다. 앞서 도출한 각 단어의 원형의미가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지 살펴보고자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예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문형은 모두 사동의미를 갖지만 각 단어의 원형적 의미가 반영되어 서로 의미의 중점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울러, 원형적 의미는 사동자와 피사동자의 유·무정성에 따른 사동성에도 영향을 끼쳤다. 두 문형의 의미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6> 두 문형의 문장의미 비교

사동의미의 把자문					使자문				
‘직접적 통제’					‘능동적 순응’				
↓					↓				
사동자의 피사동자에 대한 통제에 중점					피사동자의 사동자에 대한 순응과 능동적 행위에 중점				
↓					↓				
사동자	유정	유정	무정	무정	사동자	유정	무정	유정	무정
피동자	유정	무정	유정	무정	피동자	유정	유정	무정	무정
사동성	强	中强	中弱	弱	사동성	强	中强	中弱	弱
사동자의 유정성에 중점					피사동자의 유정성에 중점				

셋째, 힘 역학(Force dynamics) 도식을 이용한 분석이다. 앞의 두 소절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Talmy(1988)의 힘 역학 이론을 통해 두 문형의 차이를 가시화하였다. 도식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7> 두 문형의 힘 역학 비교

사동의미의 把자문	使자문
	
• 반동체가 상대적인 큰 힘으로 주동체의 활동·정지를 직접 통제	• 주동체가 내재적인 큰 힘으로 반동체의 영향에 순응하면서 능동적으로 활동·정지 경향을 유지

### 3. 통사론적 비교 연구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두 문형의 차이는 의미 층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의미 차이는 가시적인 통사 구조에 반영되어 각 문형을 이루는 성분들의 결합 조건을 결정한다. 이에 본 절은 앞 절에서 도출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차이가 통사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본다. 보다 체계적인 비교를 위해 가설을 설정하고 카이제곱( $\chi^2$ )검정<sup>22)</sup>을 통해 증명해나가는 과정을 거쳐 논의를 진행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앞 절에서 언급한 사동의미의 把자문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본고는 현대중국어 把자문을 의미상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분석한다. 순수한 처치(處置)의미를 지닌 把자문(이하 純處置), 순수한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把자문(이하 純使動), 처치의미와 사동의미를 모두 갖는 把자문(이하 準使動)이 그것이다. 다음은 『四世同堂』에 출현하는 把자문이다.

- (31) a. 桐芳相当痛苦的把话都说了。

桐芳은 매우 고통스럽게 모두 이야기했다.

- b. 他把信扔给了大哥。

그는 편지를 큰 형에게 던져주었다.

- c. 你要把我急死!

너 나를 애간장 타게 하려는 거지!

- d. 这种无情的攻击, 已足教高第把眼哭肿。

이런 무자비한 공격은 高第가 울어서 눈이 붓도록 하기에 충분했다.

22) 카이제곱 검정은 두 가지 이상의 질적 변수, 즉 범주형 변수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이다. ‘교차분석’이라고도 하며, 모집단에서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동질성 연구와 하나의 모집단에서 한 표본을 추출하여 상관관계를 검정하는 상관성 연구에 사용한다. 성태제(2012).

- e. 你打不下枣儿来, 不留神把奶奶屋的玻璃打碎, 就痛快了!  
 네가 대추를 맞히지 못하고 조심치 못해 할머니 집의 유리창을 맞혀 깨지도록 하면 통쾌할 텐데!
- f. 他想跑出去, 把老二叫回来。  
 그는 달려 나가서老二을 불러 돌아오게 하고 싶었다.

이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보면, (31a)와 (31b)는 전치사 把의 목적어가 술어의 대상(受事)이고 주어가 술어의 주체(施事)이므로, 각각 ‘桐芳说话.’와 ‘他扔信.’의 문장이 성립한다. 즉, 주체의 대상에 대한 순수한 처치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 반면 (31c)와 (31d)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把의 목적어가 술어의 주체가 된다. (31c)에서 애가 타는 주체는 목적어인 ‘나’이고, 주어인 ‘너’는 나를 애타게 하는 사동자의 역할을 하므로 ‘你使我急.’가 성립된다. (31d)에서도 ‘高第使眼哭肿.’의 문장이 성립된다. 따라서 이 두 문장은 사동의미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수한 사동의미의 把자문이다. 이제 (31e)와 (31f)를 살펴보면, 전치사 把의 목적어는 술어의 대상이자 주체가 된다. (31e)에서 ‘할머니 집의 유리창’은 맞힌 대상인 동시에 깨지게 된 주체이기도 하다. 또, 주어인 ‘너’는 유리창을 맞힌 주체이자 깨지게 만든 사동자이다. 즉, ‘你打奶奶屋的玻璃.’와 ‘你使奶奶屋的玻璃碎.’가 모두 성립되어 처치의미와 사동의미 모두를 갖는다. (31f) 역시 ‘他叫老二.’와 ‘他使老二回来.’의 문장이 모두 성립되어 처치의미와 사동의미를 모두 나타낸다. 종합해보면 (31a, 31b)는 순처치, (31c, 31d)은 순사동, (31e, 31f)는 준사동의 문장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18> 순처치, 순사동, 준사동

	주어	把	목적어	술어
순처치:	주체		대상	행위·상태
준사동:	주체 사동자		대상 주체 兼 피사동자	행위·상태
순사동:	사동자		주체 兼 피사동자	행위·상태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하는 사동의미를 갖는 把자문의 범위는 순처치를 제외한 순사동과 준사동을 포함한다. 그 근거는 첫째, 준사동이 처치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을 간과하기 어렵고 둘째, 순사동과 준사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통계검정을 실시한 결과, 둘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크지 않음을 결과로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세한 통계검정의 내용은 각 소절에서 제시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본고는 순사동과 준사동의 문장을 사동의미의 把자문으로 보고 앞으로의 논의를 진행한다.

### 3.1 주어부의 유·무정성 비교 연구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라는 명제가 있듯 숲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 속 나무들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요구된다. 같은 맥락으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전체적인 통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문형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소절은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把자문과 使자문의 주어부를 통계검정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두 문형의 통사 특징을 비교하고자 한다.

#### 3.1.1 주어부 카이제곱검정

카이제곱검정의 목적은 동질성 연구와 상관성 연구로 나뉜다. 동질성(homogeneity) 연구는 여러 모집단의 속성이 같은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여러 모집단에서 각각 표본을 추출하여 각 모집단의 속성이 유사한가를 검정한다. 이에 본 소절은 유의수준<sup>23)</sup>을 .01로 설정하고, 현대중국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 모집단에서 『四世同堂』에 출현한 각각 1,653개와 639개의 문장을 추출하여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통계검정을 진행한다. 검정에 앞서 수립한 가설<sup>24)</sup>은 다음과

23) 연구자가 범할 수 있는 판단의 오류를 허용하는 확률을 의미하며 ‘ $\alpha$ ’로 표기한다. 일반적으로 경험사회과학에서 유의수준은 .05 혹은 .01로 설정하고 있으며, 본고에서는 보다 정확한 검정을 위해 유의수준을 .01로 설정한다. 위의 책.

24) 연구자는 의사결정 시에 어떤 사실을 잠정적으로 진리로 놓고 그 잠정적 진리에 대한 지

같다.

$H_0$  : 두 문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_A$  : 두 문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에 따른 통계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어의 유·무정성을 숫자 1, 2(유정=1, 무정=2)로 입력하고 그 빈도를 정리하였다([부록 2] 참조). 이는 두 문형의 주어 유·무정성에 대한 빈도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교차표를 얻을 수 있었다.

<도표19> 문형 × 주어 유·무정성 교차표

		주어유무정성		전체
		무정	유정	
문형	사동의미把자문	171	1,482	1,653
		10.3%	89.7%	100.0%
	使자문	592	48	640
		92.5%	7.5%	100.0%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유정물 주어가, 使자문은 무정물 주어가 우세하다. 두 문형 간의 동질성은 Pearson 카이제곱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는 SPSS25)에서 주어의 유·무정성 빈도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교차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동질성 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 1402.525, 유의확률 .000을 산출하였고 [부록 1]에

지 혹은 거부를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연구를 유도하는 잠정적 진술을 의미한다. 가설은 영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하는데, 영가설(null hypothesis)은 연구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판단의 착오를 범할 때 진리인 내용이며, 연구에서 검정 받는 사실을 말한다. 귀무가설이라고도 하며 ' $H_0$ '로 표기한다. 대립가설(alternative hypothesis)은 영가설이 부정되었을 때 진리로 남는 잠정적 진술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가설이다. ' $H_A$ ' 혹은 ' $H_1$ '으로 표기하고,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가설이기 때문에 '연구가설(research hypothesis)'이라고도 한다. 위의 책.

- 25) SPSS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의 약자로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데이터 입력(data entry),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데이터 집계(data reduction) 및 통계분석(satistical analysis)을 하는 통계분석도구로서,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이다.

서 자유도<sup>26)</sup>가 1 유의수준이 .01인 카이제곱 기각값<sup>27)</sup>이 6.63이므로, 본 검정의 카이제곱 값이 기각값 보다 월등히 커 영가설을 기각한다. 즉, 두 문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상관성 연구로 한 모집단으로부터 하나의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의 각 사례에서 두 변수를 관찰하여 두 변수가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검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유의수준을 .01로 설정하고, 현대중국어 통사적 사동문<sup>28)</sup>의 모집단에서『四世同堂』에 출현한 1,653개의 把자문과 639개의 使자문을 추출하여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통계검정을 진행한다. 다음은 검정을 위해 설정한 가설이다.

$H_0$  : 두 문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서로 관계가 없다.

$H_A$  : 두 문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서로 관계가 있다.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한 두 문형간의 상관성은 Cramer's V<sup>29)</sup>라는 상관계수로

- 
- 26) 편차의 합이 0을 충족시키고 즉 평균을 유지하면서, 자유스럽게 어떤 값도 가질 수 있는 사례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df' 혹은 'v'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4명의 점수가 2, 3, 5, 2 점인 표본의 크기가 4인 자료에서 자유도는 3이 된다. 4명(N=총 사례수)의 표본에서 3명은 어떤 점수라도 가질 수 있지만 나머지 1명은 편차의 합이 0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값도 자유스럽게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자유도는 3(N-1)이 된다. 성태제(2012).
- 27) 기각역(rejection region)은 영가설을 부정, 거부하는 지역을 말하며, 그에 해당하는 값을 기각값이라고 한다. 반면 영가설을 지지, 선택하는 지역을 채택역(acceptance region), 그에 해당하는 값을 채택값이라고 한다. 위의 책.
- 28) Comrie(1976, 1981)는 사동문의 유형을 사동 사건이 표현되는 언어 형식에 따라 통사적 사동문, 어휘적 사동문, 형태적 사동문으로 분류하였다. 통사적 사동문은 사동 사건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이 문법적 장치에 의해서 실현되는 사동문이고, 어휘적 사동문은 사동 사건을 표현하는 문법 형식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어휘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사동문이며, 형태적 사동문은 사동 사건을 표현하는 언어 형식이 형태소에 의해 표현되는 사동문이다. Comrie의 분류에 따르면, 중국어에는 전치사에 의해 실현되는 통사적 사동문과 사령 동사(使令動詞)에 의해 실현되는 어휘적 사동문 외에, Comrie의 분류에 포함시킬 수 없는 동보(動補) 구조에 의한 사동문 등이 있다. 박연옥·박동호(2008).
- 29) 이 계수는 1946년 Herald Cramer가 카이검정에 근거하여 제시한 계수이다. 보통 두 명목 척도 사이의 상관성은 파이( $\phi$ )계수로 구하지만, 파이계수는 두 범주로만 나뉘는 명목척도 (2x2) 사이의 상관성만 구할 수 있는 반면 Cramer's V는 세 범주 이상으로 나뉘는 명목척도 사이의 상관성까지 구할 수 있어서, 다음 소절에서 이루어질 목적어부와 술어부의 통계검정과 통일성을 추구하였다. Cramer's V의 값은 0과 1사이에 위치하며, 1에 가까울

구할 수 있는데, 이는 SPSS에서 교차분석을 통해 주어의 유·무정성 빈도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분석 결과, Cramer's V 값 .782, 유의확률 .000으로 두 문형이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은 주어부의 유·무정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특히,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유정물 주어와, 使자문은 무정물 주어와의 결합을 선호한다.<sup>30)</sup> 이제 주어의 속성을 조금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자. 유정물을 사람과 비사람으로, 무정물을 사건, 추상명사, 구체명사로 구분하여 그 결합빈도를 통계 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20> 주어 속성별 결합빈도

	유정물		무정물		
	사람	비사람	사건	추상사물	구체사물
사동의미 把자문	1471 99.3%	11 0.7%	43 24.9%	40 23.1%	90 52%
使자문	48 100%	0 0%	258 43.4%	257 43.3%	79 13.3%

위의 도표에 의하면, 유정물의 경우 두 문형 모두 사람인 주어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만, 무정물 주어의 경우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구체사물이 우세한 반면 使자문은 사건과 추상사물에서 우세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3.1.2 주어부 결과 분석

이제 ‘전체’와 ‘부분의 합’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

수록 두 변수 사이의 상관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20 이하: 경미한 상관 .20-.40: 낮은 상관 .40-.70: 상당한 상관 .70-.90: 높은 상관 .90 이상: 매우 높은 상관) 오택섭(2003).

- 30) 준사동과 순사동의 통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Pearson 카이제곱 값 11.718, 유의확률 .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두 사동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미미하고, Cramer의 V값 .084, 유의확률 .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두 사동형이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절은 준사동과 순사동을 모두 사동의미의 把자문으로 보고 통계 검정 및 분석을 진행한다.



다'라는 명제를 생각해보자. 숲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숲 속 나무들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의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도 있다. 숲은 누군가에게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추억이 담긴 아련한 공간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날짐승을 만났던 공포의 장소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숲 전체에 대한 다소 상반된 인식은 숲 속 개별 나무들에 대한 인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상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도 옛 향수를 느끼게 하는 소중한 매개일 수 있지만, 후자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나무라도 두려움을 일으키는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숲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무들 개개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 전체 특성과 개별 나무의 특성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해석해내는 작업이 요구된다. 같은 맥락으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을 이루는 개별 요소들은 문형 전체가 드러내고자하는 본질적 의미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으며, 서로 긴밀한 상호작용을 이룬다.

이제까지의 분석 결과,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유정물 주어, 使자문은 무정물 주어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았고, 무정물의 경우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구체사물이, 使자문은 사건과 추상사물을 나타내는 주어가 우세를 보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일까. 그 근원을 찾아가기 위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적 본질에 접근해보자. 앞 소절에서 把자는 '직접적 통제성'으로, 使자는 '능동적 순응성'으로 원형적 의미를 도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와 본 절의 분석 결과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먼저 把자의 '직접적 통제성'을 살펴보자. '통제'라는 의미는 누군가 가하게 되면 다른 한편은 당하게 되는 양면을 지닌다. 즉, 통제자(A)와 피통제자(B)가 존재한다. 이들은 문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A가 일방적으로 가하는 것에 초점을 둔 통제일 수 있고, 역으로 B가 당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통제일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통제하다'와 같은 표현에서, 후자의 경우 '통제되다' 등의 문장에서 잘 드러난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21> 통제의 양면성<sup>31)</sup>

통제자 중심		피통제자 중심
통제하다	⇔	통제되다
통제를 가하다		통제를 받다
통제를 강화하다		통제 아래 놓이다
통제를 풀다		통제에 따르다

즉, ‘직접적 통제성’은 ‘직접’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 통제자의 통제행위에 그 핵심이 있다. 따라서 把자는 통제자의 강력한 통제가 깃든 철저히 통제자 중심의 단어이다. 이제 使자의 ‘능동적 순응성’을 살펴보자. 여기서의 ‘순응’도 마찬가지다. 통제를 가하는 통제자(A')가 있고, 통제에 순응하는 피통제자(B')가 존재한다. ‘순응’이라는 의미의 양면성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lt;도표22&gt; 순응의 양면성

통제자 중심		피통제자 중심
순응하게 하다	⇔	순응하다
순응을 강요하다		순응에 저항하다
순응을 유도하다		순응적이다
순응시키다		순응해버리다

즉, ‘능동성 순응성’의 ‘능동’이라는 단어를 통해 使자가 다분히 피통제자에 초점이 맞추어진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이제 『四世同堂』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32) a. 老人已经睡了觉, 瑞宣现把他叫起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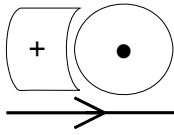
노인은 이미 자고 있었고, 瑞宣은 곧 그를 불러 일어나게 했다.

- b. 她的责任心使她坚强, 勇敢, 任劳任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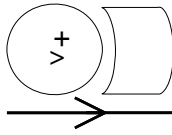
그녀의 책임감이 그녀를 강하고 용감하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게 했다.

31)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에서 제공하는 ‘말뭉치 용례 간단 검색’을 통해 얻은 결과로, 검색 대상은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말뭉치 일부(7,364,815 어절)이며, 검색 형태소가 포함된 어절의 좌우 10어절을 추출하였다.

(33) a.



b.



통제자 중심의 把자와 피통제자 중심의 使자가 두 문형에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자. (32a)의 ‘瑞宣’과 (32b)의 ‘책임감’은 각각 ‘그’와 ‘그녀’에게 통제를 가하는 통제자이자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고 그녀를 강하게 만드는 사동자이다. 또한 (32a)의 ‘그’와 (32b)의 ‘그녀’는 각각 ‘瑞宣’과 ‘그녀의 책임감’에 의해 통제를 당하는 피통제자이자 사동의 지배대상인 피사동자이다. 이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는 (33)의 힘 역학 도식으로 살펴볼 수 있다. (33a)는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지닌 반동체 瑞宣이 계속 자려는 정지경향의 주동체 노인에게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여 결국 깨워 일어나게 했음을 나타내고, (33b)는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지닌 주동체 그녀가 반동체인 책임감의 영향을 받아 보다 능동적으로 강하고 용감하며 노고를 마다하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즉, 단어의 의미에서 드러났던 통제자와 피통제자는 문장의 의미에서 각각 사동자와 피사동자, 반동체와 주동체의 관계로 반영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 특징은 통사적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통제자·사동자·반동체는 모두 문장 속 ‘주어’에 자리하고 있는 반면, 피통제자·피사동자·주동체는 모두 ‘목적어’에 위치하고 있다.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주어의 목적어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로, 使자문은 주어의 영향을 받는 목적어의 능동적인 순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주어의 강력한 통제성을 나타내기 위해 (32a)의 ‘瑞宣’과 같은 유정물이 효과적이고, 만물의 영장인 사람 주어는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다. 물론 무정물 주어가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때의 무정물은 유정물 못지않은 힘을 지녀야 하기 때문에 추상적이기 보다는 구체적인 특정 사물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반면, 使자문에서의 중심은 능동적인 목적어이지 주어가 아니다. 따라서 주어의 힘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에는 단연 유정물 보다는 (32b)의 ‘책임감’과 같은 무정물이, 무정물 중에서도 구체적인 사물보다는 사건이나 추상적인 사물을 지칭하는 주어가 더 효과적이다. 종합해보면, 본 절의 분석 결과는 각 문형의 본질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자가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호한 것에서 비롯되었음

을 알 수 있다.

## 3.2 목적어<sup>32)</sup>부의 유·무정성 비교 연구

본 소절에서는 두 문형의 목적어부에 대한 통계 검정 및 비교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앞 소절의 주어부에 대한 분석 결과와 연결 지어 살펴본다면 보다 명확한 비교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3.2.1 목적어부 카이제곱 검정

먼저, 동질성 연구를 위해 유의수준을 .01로 설정하고, 현대중국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 모집단에서『四世同堂』에 출현한 각각 1,653개의 把자문과 639개의 使자문을 추출하여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검정을 진행한다. 검정에 앞서 수립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  : 두 문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_A$  : 두 문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에 따른 통계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목적어의 유·무정성을 숫자 1, 2 (유정=1, 무정=2)로 입력하고 그 빈도를 정리하였다([부록 3] 참조). 이는 두 문형의 목적어 유·무정성에 대한 빈도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하고자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교차표를 얻을 수 있었다.

32) 김현철(2003)은 빈어에 대해 대체로 술어동사의 대상으로서의 목적어와 동일시 할 수 있지만, 판단빈어나 존재, 출현, 소실빈어의 경우 목적어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정확한 어법용어는 ‘빈어’이지만,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목적어’임을 고려하고, 또 본고에서는 전치사 把에 후행하는 성분을 가리키므로 목적어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본고는 ‘목적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lt;도표23&gt; 문형 × 목적어 유·무정성 교차표

		목적어유무정성		전체
		무정	유정	
문형	사동의미把자문	1172	483	1,655
		70.8%	29.2%	100.0%
	使자문	133	506	639
		20.8%	79.2%	100.0%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무정물 목적어가, 使자문은 유정물 목적어가 선호된다. 두 문형의 동질성은 Pearson카이제곱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는 SPSS에서 목적어의 유·무정성 빈도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교차분석을 통해 산출해 낼 수 있다. 동질성 분석 결과, 카이제곱 값 469.958, 유의확률 .000을 얻을 수 있었고 유의수준 .01에서 영가설이 기각되므로, 두 문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상관성 연구이다. 유의수준을 .01로 설정하고, 현대중국어 통사적 사동형의 모집단에서『四世同堂』에 출현한 1,653개의 把자문과 639개의 使자문을 추출하여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검정을 진행한다. 다음은 검정을 위해 설정한 가설이다.

$H_0$  : 두 문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서로 관계가 없다.

$H_A$  : 두 문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서로 관계가 있다.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한 두 문형간의 상관성은 Cramer's V 상관계수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SPSS에서 목적어의 유·무정성 빈도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교차분석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산출해낼 수 있으며, 분석 결과, Cramer's V 값 .453, 유의확률 .000으로 두 문형이 주어의 유·무정성에 있어서 상당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은 목적어부의 유·무정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특히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무정물 목적어와, 使자문은 유정물 목적어와의 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3)</sup> 목적어의 속성을 세분화하여 그 결합빈도를 통계

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표24> 목적어 속성별 결합빈도

	유정물		무정물		
	사람	비사람	사건	추상사물	구체사물
사동의미 把자문	464 96.1%	19 3.9%	10 0.9%	256 21.8%	908 77.3%
使자문	501 98.8%	6 1.2%	0 0%	76 56.7%	58 43.3%

즉, 유정물의 경우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 모두 사람인 목적어가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한 반면, 무정물의 경우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구체사물 목적어, 使자문은 추상사물 목적어의 비율이 높아 다소 차이를 보인다.

### 3.2.2 목적어부 결과 분석

두 문형 사이에는 주어뿐 아니라 목적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는 把자와 使자의 본질적인 의미차이에서 비롯된다. 이제 두 문형의 의미 차이가 목적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四世同堂』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34) a. 大赤包听到此处, 一兴奋, 几乎把酒瓶掉在地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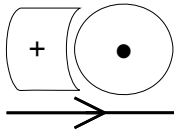
大赤包는 여기까지 듣고는 흥분해서 술병을 바닥에 떨어지게 할 뻔했다.

- b. 可是, 这足以使妈妈得到安慰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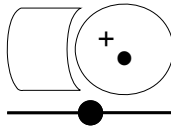
그런데 이것이 어머니에게 위안을 얻게 해줄까?

33) 준사동과 순사동의 목적어 유·무정성에 대한 통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Pearson 카이제곱 값 4.038, 유의확률 0.044로 유의수준 .001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지 않으므로, 두 사동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또한 Cramer의 V 값 .049, 유의확률 0.044로 유의수준 .001에서 목적어의 유·무정성과 두 사동형 사이에도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절은 준사동과 순사동을 모두 사동 의미의 把자문으로 보고 통계 검정 및 분석을 진행한다.

(35) a.



b.



통제자 중심의 把자는 (34a)에 반영되어 사동자인 ‘大赤包’가 피사동자인 ‘술병’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반면 피통제자 중심의 使자는 (34b)에서 피사동자인 ‘어머니’가 사동자인 ‘이것’에 영향을 받아 스스로 위안을 얻는 능동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힘 역학 도식과 함께 살펴보면, (35a)는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지닌 반동체 大赤包가 계속 제자리에 있으려는 정지경향의 주동체 술병에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여 결국 술병이 떨어지게 함을 나타내고, (35b)는 상대적으로 더 큰 힘을 지닌 주동체 어머니가 반동체인 이것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 위안을 얻는 심리적인 안정 상태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의미 특징은 통사 구조에 반영되는데, 사동의미의 把자문의 경우, 주어의 강력한 통제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목적어를 (34a)의 ‘술병’과 같은 무정물로 표현하고, 통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야만 통제성을 보다 명확히 드러낼 수 있으므로, 무정물 중에서도 주로 구체적인 사물을 사용한다. 반면, 使자문에서의 주인공인 능동적 목적어는 상대적으로 강한 힘을 지녀야 하므로 (34b)의 ‘어머니’와 같은 유정물이 효과적이다. 무정물 목적어가 사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과 같은 추상성이 강한 표현은 자주 사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물 목적어가 주로 사용된다.

### 3.3 술어부의 의미 · 형식 비교 연구

본 소절에서는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술어부를 통계 검정의 방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주어부 · 목적어부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두 문형의 비교 분석을 더욱 심화시키고자 한다.

### 3.3.1 술어부 카이제곱 검정

먼저 동질성 연구이다. 본 소절에서는 술어부를 보다 세밀하게 아우르고자 의미와 형식 방면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한다. 먼저 술어부를 의미상 ‘심리·감각’, ‘행위·동작’, ‘성질·상태’의 세 부류로 분류한다. 유의수준을 .01로 설정하고, 현대중국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 모집단에서 『四世同堂』에 출현한 각각 1,653개의 把자문과 639개의 使자문을 추출하여 술어의 의미에 대해 검정을 진행한다. 검정에 앞서 수립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  :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_A$  :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에 따른 통계 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술어의 의미를 숫자 1, 2, 3(심리·감각=1, 행위·동작=2, 성질·상태=3)으로 입력하고 그 빈도를 정리하였다([부록 4] 참조). 이는 두 문형의 술어의미에 대한 빈도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표현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교차표를 얻을 수 있다.

<도표25> 문형 × 술어의미 교차표

		술어의미			전체
		성질상태	심리감각	행위동작	
문형	사동의미把자문	29	83	1,541	1,653
		1.8%	5.0%	93.2%	100.0%
	使자문	82	331	235	648
		12.7%	51.1%	36.3%	100.0%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행위·동작 술어가, 使자문은 심리·감각 술어가 우세한다. 두 문형의 동질성 분석 결과는 카이제곱 값 859.203, 유의확률 .000을 산출하였고, [부록 1]에서 자유도가 2이고 유의수준이 .01인 카이제곱 기각값이 9.21이므로 영가설을 기각한다. 즉,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 형식상 두 문형을 ‘動結式’, ‘動趨式’, ‘動得式’, ‘動量式’, ‘單獨式’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sup>34)</sup>. 유의수준은 .01로 설정하고, 현대중국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 모집단에서 『四世同堂』에 출현한 각각 1,653개의 把자문과 639개의 使자문을 추출하여 술어의 형식에 대한 검정을 진행 한다. 검정에 앞서 수립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H<sub>0</sub> : 두 문형은 술어의 형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H<sub>A</sub> : 두 문형은 술어의 형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가설에 따른 통계 검정을 실시하기 위해, 술어의 의미를 숫자 1, 2, 3, 4, 5(動結式=1, 動趨式=2, 動得式=3, 動量式=4, 單獨式=5)로 입력하고 그 빈도를 정리하였다 ([부록 4] 참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34) 宛新政(2004)은 范曉(2001)이 把자문의 형식을 10가지 종류로 나눈 것을 기초로 사동의미의 把자문의 형식을 10가지 부류로 분류하여 제시한 바 있다. 본고는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보다 효율적인 비교를 위해 보어(補語)의 형식에 따라 5가지로 재분류하였다. 분류방식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宛新政(2004) 분류방식	본고 분류방식
① 動結式 : 동사+결과보어 (예: 放大了。哭湿了。)	① 動結式
② 動介式 : 동사+전치사구보어 (예: 联系在一起了。转移到~。)	
③ 動趨式 : 동사+방향보어 (예: 底下去。笑出去。)	
④ 動得式 : 동사+得+가능/상태/정도보어 (예: 冰得很凉。晃得厉害。)	③ 動得式
⑤ 動副式 : 동사+부사 (예: 吓坏了。伤透了。)	④ 動量式
⑥ 動量式 : 동사+수량보어 (예: 运行了一遍。发达一下。)	
⑦ 動宾式 : 동사+목적어 (예: 转个圈儿。撒了手。)	
⑧ 动体式 : 동사+동태조사 (예: 把我感动了。把身体扭着。)	
⑨ 状动式 : 부사어+동사 (예: 把窗户大开。加紧地抽。)	
⑩ 单独式 : 단독동사 (예: 把我怎么样? 把关系恢复。)	⑤ 單獨式

『實用現代漢語語法』에서는 결과보어에 ‘在’를 포함시켜 “동작을 통해 사람이 사물로 하여금 어느 한 장소나 시간에 놓이게 됨을 나타낸다”고 해설한 바 있다. 이에 본 소절은 宛新政(2004)의 動介式을 動結式과 함께 설명한다. 또한 정도보어에 대해서는 “정도보어는 의미상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형식상으로는 得를 사용하여 연결하는 것과 得를 사용하지 않고 연결하는 것 두 종류가 있다.”고 하여, 宛新政(2004)의 動副式에 해당하는 여러 예문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의미상 動得式과 動副式을 한 데 묶어 분석하기로 한다.

&lt;도표26&gt; 문형 × 술어형식 교차표

		술어형식					전체
		單獨式	動結式	動得式	動量式	動趨式	
문형	사동의미把자문	23	923	117	1	589	1,653
		1.4%	55.8%	7.1%	1%	35.6%	100.0%
	使자문	381	138	14	50	57	640
		59.5%	21.6%	2.2%	7.8%	8.9%	100.0%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動結式 술어가, 使자문은 單獨式 술어가 선호됨을 알 수 있다. 동질성 분석 결과는 카이제곱 값 1263.237 유의확률 .000으로 [부록 1]에서 자유도가 4이고 유의수준이 .01인 카이제곱 기각값이 13.28이므로 영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즉, 두 문형은 술어의 형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다음은 상관성 연구이다. 상관성 연구 역시 의미와 형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의미에 대한 검정이다. 유의수준을 .01로 설정하고, 현대중국어 통사적 사동형의 모집단에서 『四世同堂』에 출현한 각각 1,653개의 把자문과 639개의 使자문을 추출하여 술어의 의미에 대해 검정을 진행한다. 다음은 검정을 위해 설정한 가설이다.

$H_0$  :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에 대해 서로 관계가 없다.

$H_A$  :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에 대해 서로 관계가 있다.

두 문형의 상관성 분석 결과, Cramer's V 값 .611 유의확률 .000으로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와 상당한 상관이 있었다. 정리해보면, 두 문형은 술어부의 의미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고, 특히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행위·동작의 의미를 지닌 술어, 使자문은 심리·감각의 의미를 지닌 술어와의 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술어의 형식에 대한 상관성 검정으로 검정 방식은 위와 동일하다. 검정 결과, Cramer's V 값 .453, 유의확률 .000으로 두 문형이 술어의 형식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은 술어부의 형식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서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특히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動結式 구조, 使자문은 單獨式 구조와의 결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5)</sup>

### 3.3.2 술어부 결과 분석

이제까지 카이제곱 통계검정을 통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술어부의 의미 및 형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의 경우 행위·동작의 의미를 지닌 動結式 술어와, 使자문은 심리·감각의 의미를 지닌 單獨式 술어와 결합하는 빈도가 높았다. 이렇듯 두 문형 사이에는 주어와 목적어 뿐 아니라 술어부에서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본 바처럼 把자와 使자의 본질적인 의미 차이에서 비롯되는데, 이제 두 문형의 의미 차이가 술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36) a. 她还要把他留在家里, 好痛痛快快的骂他一顿。  
그녀는 그를 집에 남게 해서 통쾌하게 한바탕 욕을 퍼붓고자 했다.
- b. 我来请客, 把钱先生请过来, 大家谈谈。  
내가 대접을 해서 钱先生님을 초대해 오시게 할 테니 함께 이야기 해봅시다.
- c. 工作使她疲劳, 可也使她自傲。  
일은 그녀를 피곤하게 하지만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 d. 这些, 都使他感到兴奋与满意。  
이것들이 그를 감격하고 만족하게 하였다.

35) 준사동과 순사동의 술어의미 및 형식에 대한 통계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술어의 의미에 대한 검정 결과, Pearson 카이제곱 값 4.038, 유의확률 0.044로 유의수준 .001에서 두 사동형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Cramer의 V값 .094, 유의확률 0.001로 유의수준 .001에서 서로 상관관계 또한 없음을 알 수 있다. 술어의 형식에 대한 검정 결과는 Pearson 카이제곱 값 235.703, 유의확률 0.000로 유의수준 .001에서 그 차이가 미미하고, Cramer의 V값 0.378, 유의확률 0.000로 유의수준 .001에서 두 사동형의 상관관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사동의미의 把자문이다. (36a)에서는 통제자 중심의 把자로 인해 사동자인 ‘그녀’가 피사동자인 ‘그’에게 직접적인 통제력을 행사하고, 결국 그가 집에 남게 하고자 한다. (36b) 역시 사동자인 ‘내’가 피사동자인 ‘銭선생님’을 직접 초대해 오게 하는 통제력을 발휘하고자 한다. 이처럼 두 문장은 사동자의 강한 의지와 힘이 핵심이 되며, 이는 사용자가 술어의 의미와 형식을 선택할 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의미적으로는 통제력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통제의 구체적인 행위 및 동작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36a)에서의 ‘집에 남게 하다’와 (36b)의 ‘초대하여 오게 하다’가 이에 해당한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통제를 가한 결과가 잘 드러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실 ‘통제’라는 개념은 일면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제의 결과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였는지를 나타냄으로써 통제의 개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동의미의 把자문에서의 술어는 결과보어를 갖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36a)에서 만약 그를 남게 하는 행위에서 문장이 맺어졌다면 남게 했지만 그가 정말 남았는지 아니면 남지 않고 도망을 갔는지 행위의 결과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그에 대한 그녀의 통제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단지 그를 남게 할 뿐 아니라 그가 집에 있게 되는 결과적인 행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그녀의 직접적 통제가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또한 (36b)와 같이 통제 행위의 결과를 방향보어를 통해 나타내는 방법도 선호된다. 그를 초대하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 그가 내가 있는 방향으로 오시게 됨을 나타냄으로써 銭선생님에 대한 나의 통제력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다음은 使자문이다. (36c)에서는 피통제자 중심의 使자로 인해 피사동자인 ‘그녀’가 사동자인 ‘일’의 영향을 받아 능동적으로 피곤해지기도 하고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36d)에서도 피사동자인 ‘그’가 사동자인 ‘이것들’로 인해 자신의 의지로 감격하고 만족하게 된다. 이처럼 두 문장에서는 피사동자의 의지와 능동성이 핵심이 된다. 이 역시 술어의 의미와 형식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의미 측면에서는 능동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 피사동자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심리·감정 및 생리·감각에 관련된 술어들이 자주 사용된다. (36c)의 ‘피곤하다’, ‘자부심을 느끼다’와 (36d)의 ‘감격하다’와 ‘만족하다’가 이를 잘 보여준다. 형식적으로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에서와 같이 행위의 결과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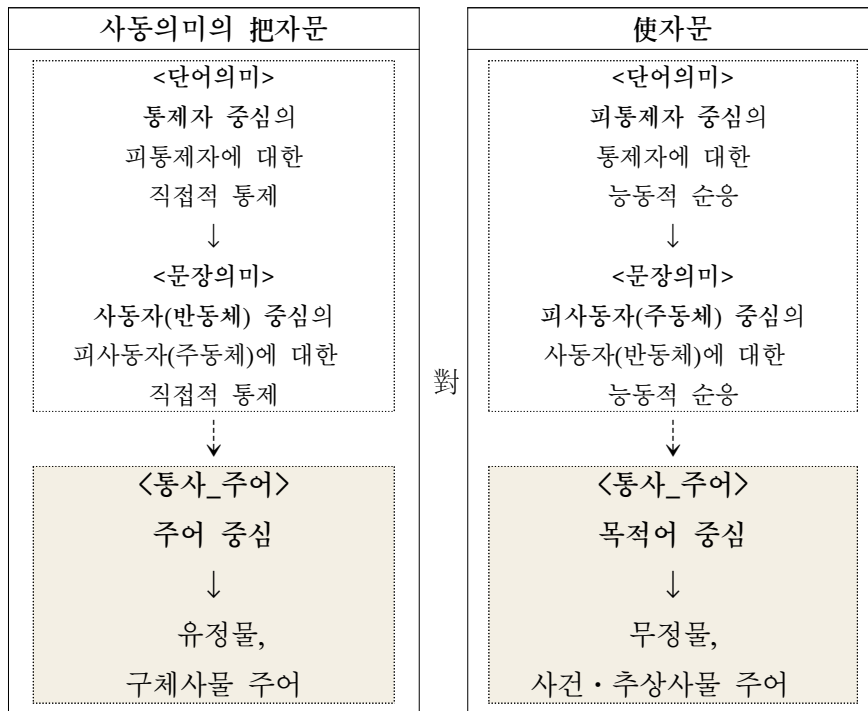
한 요구가 강하지 않고, 심리 및 감각을 나타내는 술어만으로 충분히 피사동자의 능동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36c)에서와 같이 보어를 동반하지 않은 단독 술어가 주로 사용된다. 또한 動結式의 술어도 선호되는데 이는 대부분 (36d)와 같은 형식으로, 이것들이 그로 하여금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 하였는데 그 결과 감격하고 만족스러운 상태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이는 ‘초대해서’+‘오시게 하다’와 같이 ‘원인’+‘결과’를 드러내기 보다는 감정이나 감각 등을 섬세하게 표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볼 수 있어서, 사동자의 통제력 보다는 오히려 피통제자의 능동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3.4 소결

이제까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을 통사론적으로 비교하고자 다음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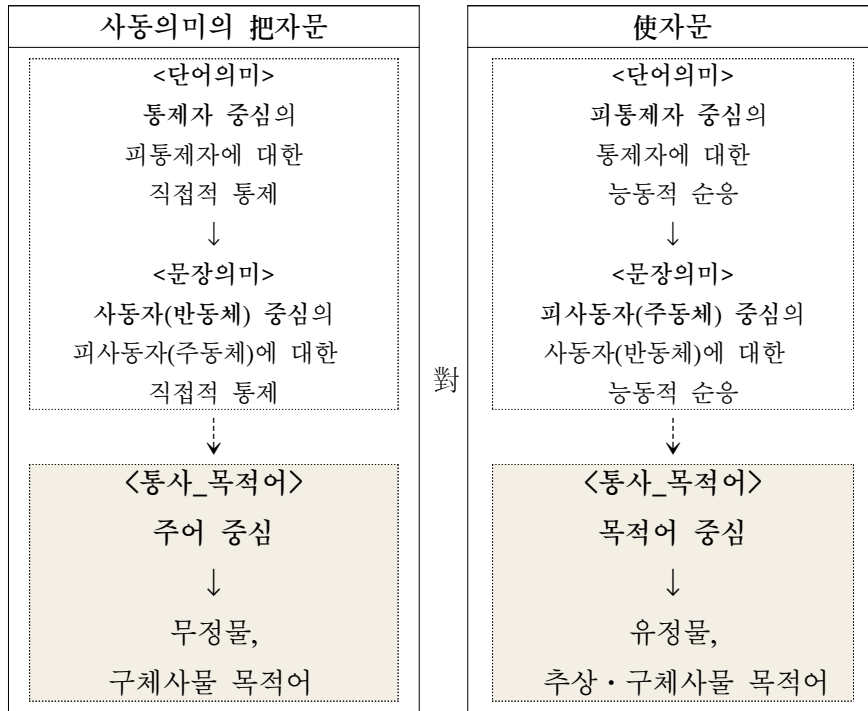
첫째, 주어부 분석이다. 두 문형을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여 동질성 연구와 상관성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인 차이를 그 원인과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lt;도표27&gt; 두 문형의 주어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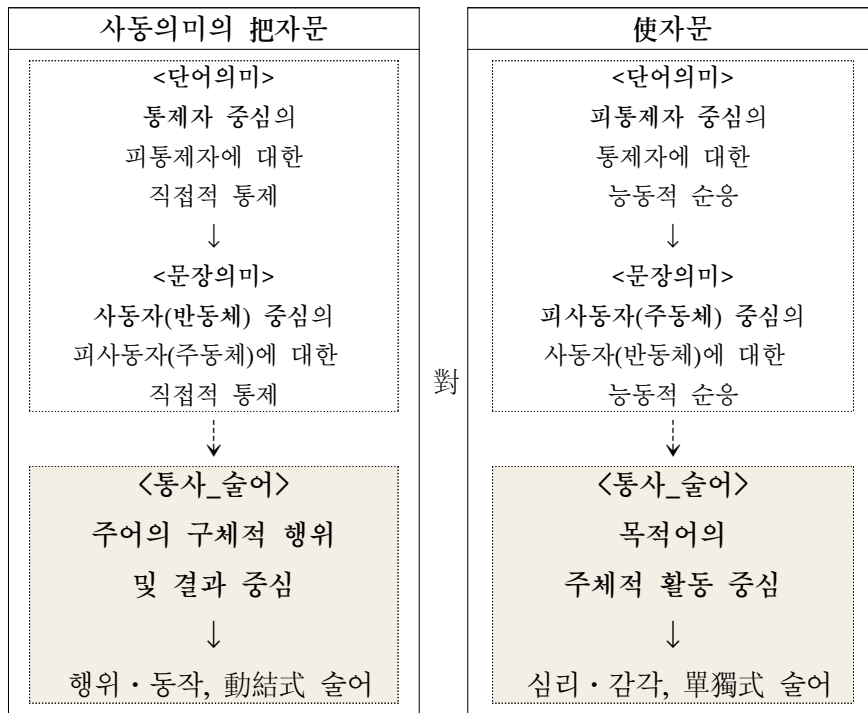
둘째, 목적어부 분석이다. 목적어부 역시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동질성 및 상관성 연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있어서 두 문형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문형의 구체적인 차이와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도표28> 두 문형의 목적어부 비교



마지막으로, 술어부 분석은 크게 의미와 형식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동질성 및 상관성 연구를 실시한 결과,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술어의 의미와 형식 모두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고, 또 술어의 의미와 형식 모두에 대해 두 문형이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를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lt;도표29&gt; 두 문형의 술어부 비교



이상의 세 부분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도표를 얻을 수 있다.

&lt;도표30&gt; 두 문형의 통사 특징 비교

사동의미 把자문	유정물 주어 + 把 + 부정물 목적어 + 행위·동작/動結式 술어
使자문	부정물 주어 + 使 + 유정물 목적어 + 심리·감각/單獨式 술어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유정물로 표현되는 강력한 주어가 부정물로 대변되는 상대적으로 약한 목적어에게 구체적인 행위나 동작으로써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고, 그 후 모종의 결과가 생기게 될 때에 본연의 의미가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반면, 使자문은 유정물로 표현되는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주어가 부정물로 대변되는 목적어의 영향을 받아 심리 혹은 감각 작용을 능동적으로 일으키고, 그 후에 생기는 결과보다는 능동적인 심리 및 감각 작용 자체가 중요시될 때에 그



본질적인 의미가 잘 드러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는 <도표30>과 같은 통사 구조를 강력하게 선호하게 되며, 본연의 의미를 전달하기에 부족한 구조는 자연스럽게 사용되지 않게 되어 결국 사용상 어색하거나 용법상 올바르지 못한 비문으로 발전하게 된다.

## 4. 화용론적 비교 연구

두 문형의 의미 차이는 통사 구조뿐 아니라 담화 상황에도 반영되어, 실제 의사소통 행위에서 화자(話者)의 언어 구성 방식을 결정한다. 이에 본 절은 앞서 도출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차이가 화용적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체계적인 비교를 위해 담화 화용론의 ‘전경-배경’의 개념을 이용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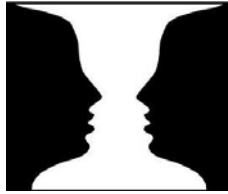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본고에서 주목하는 전경(前景, foreground)과 배경(背景, background)은 20세기 초반에 등장한 게슈탈트 심리학의 전경과 배경(figure and ground)의 개념을 근거로 한다. 이는 루빈(1915,1921)에서 발표한 것으로, 전경과 배경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sup>36)</sup>

- ① 전경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배경은 상대적으로 형태가 없다. 예컨대 아래의 <그림 1>에서와 같이 검은 영역이 도형(圖形)일 때는 꽃병을 꽃병으로 보지 못한다.
- ② 배경은 도형의 가장자리 뒤에 퍼져 있는 것 같이 보인다.
- ③ 따라서 전경은 어떤 물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배경은 형태를 이루지 못한 재료같이 보인다.
- ④ 전경은 전면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배경은 뒤에 있다.
- ⑤ 전경은 더 인상적이고, 의미를 나타내는데 적합하며, 더 잘 기억된다.

---

36) 김정희(2000).

&lt;그림1&gt; 전경과 배경의 개념



이러한 ‘전경-배경’ 구별에 입각하여, 담화 화용론에서는 정보를 그 기능에 따라 전경 정보와 배경 정보로 구별한다. 전경 정보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 사건이나 실체, 또는 등장인물에 관한 정보로서 이야기를 추진시키는 의사소통 부담량(communicative dynamism)이 높은 정보이다. 배경 정보는 배경, 평가, 해설, 사소한 사건이나 등장인물 등에 대한 정보로서 이야기의 진전에 간접적인 역할을 하는, 의사소통 부담량이 낮은 정보이다. 화자는 배경 정보를 바탕(ground)으로 하고 전경 정보를 초점화하여 형상(figure)으로 두드러지게 표현함으로써 청자의 주의를 끌어들인다. 다음의 예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 (37) 내가 어제 심심해서 서점에 나가 봤었는데, 새로 나온 책이 뭐 있나  
보고 있는데 거기서 초등학교 친구를 만난 거야.

(37)은 ‘내가 어제 심심했다’, ‘서점에 갔다’, ‘책을 구경했다’,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등의 여러 정보를 포함한다. 이들의 지위가 모두 같지는 않다. 심심했다거나, 서점에 갔다거나, 서점에서 책을 구경했다는 정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즉 우연히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예비적 정보에 불과하다. 즉,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다는 정보가 전경 정보라면, 나머지는 배경 정보라고 할 수 있다.<sup>37)</sup> 중국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38) 我昨天费了很长时间才找到这里, 一看门上写着每周一、三、五上午登记,  
只好今天又跑了一趟。 (CCL)

내가 어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곳을 겨우 찾아냈는데, 매주 월·수·  
금요일 오전에만 등록을 받는다고 문에 적혀 있어서, 할 수 없이 오늘

37) 박재연(2007).

한 번 더 왔지 뭐야.

(38) 역시 여러 가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이곳을 겨우 찾아내고, 문에 월·수·금요일 오전에만 등록을 받는다고 쓰여 있었던 일들은 모두 배경 정보로써 ‘할 수 없이 오늘 한 번 더 오게 되었다’는 전경 정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Hopper&Thompson(1980)은 이러한 전경과 배경의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도표31> 전경과 배경의 구분<sup>38)</sup>

전경(前景, foreground)	배경(背景, backgrou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li> <li>• 텍스트의 중추 부분</li> <li>• 주 에피소드 구성 및 기본 골격</li> <li>• 연속된 시간 순으로 사건 배치</li> <li>• 주요 관심부 및 핵심부</li> <li>• 타동 지향성(high transitivity)</li> <li>• 높은 의지(high volitionality)</li> <li>• 순간동사(punctual verb) 사용</li> <li>• 완료상</li> <li>• VS 어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면 설정(scene-setting)</li> <li>• 주 에피소드에 대해 부차적 역할</li> <li>• 주변 사건 묘사</li> <li>• 주요 사건을 보조 또는 논평</li> <li>• 불연속적인 시간 구성</li> <li>• 낮은 타동성(less transitivity)</li> <li>• 낮은 의지(low volitionality)</li> <li>• 지속, 정태동사(durative, stative)</li> <li>• 불완료상</li> <li>• SV 어순</li> </ul>

위의 도표에 근거해, 복문(複文)에서의 주절을 ‘전경’으로 종속절을 ‘배경’<sup>39)</sup>으

38) 조은영(2010).

39) (a) While his mother was doing the dishes, John sneaked out.

(b) Thinking about his beloved aunt, John scratched his ear.

(a)의 주절인 ‘John sneaked out’은 주요 사건으로 전경 정보이며, 종속절 ‘While his mother was doing the dishes’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어 전경 정보를 뒷받침해 주는 배경 정보로 나타난다. (b)의 주요 사건인 ‘John scratched his ear’는 전경 정보이며, John의 정신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분사 구문 ‘Thinking about his beloved aunt’는 배경정보이다. 박수진(2010).

로 보고 각 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종속절은 주로 장면 설정(scene-setting)의 역할을 하고, 주절은 스토리 라인을 구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절에서 순간동사(punctual verb)와 타동사(transitive verb)가 자주 사용되고, 자발적 의지를 가진 주어의 행위가 부각된다. 전경이 전체 플롯을 구성하기 때문에 주절만으로도 전체 사태의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사절은 주절을 보조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건 구성과는 거리가 멀다. 주어의 행위보다는 주변 상황과 장면을 묘사하는 일을 하므로 불완료상을 가진 동사, 정태동사가 주로 사용되고 배경절 사이의 관계는 불규칙적이고 험잡다.

그렇다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경우는 어떠한가. 두 문형이 복문에서 각각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지, 또 두 문형이 함께 사용될 때에는 어떤 문형이 전경 혹은 배경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본다면, 두 문형의 실제 화용 양상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4.1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전경-배경’

본 소절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문장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四世同堂』에 출현한 把자문과 使자문 전체에서 복문에서 사용된 모든 경우를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기존에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정리해보자.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을 ‘전경-배경’의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했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賀曉玲(2001)은 다음의 예를 통해 使자문은 일반적으로 ‘전경’에, 把자문은 ‘배경’에 속한다고 설명한다.

- (39) 一阵狗叫, 把她从酣睡惊醒, 她急忙跳下床, 来到窗口, 往下一看, 刘伯正在后院的草坪上喂狗。  
(曹桂林『北京姑娘在纽约』)

한바탕 개가 짖어서 그녀를 숙면에서 놀라 깨어나게 했고, 그녀가 급히 침대를 내려와 창문에 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刘伯이 후원의 잔디밭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

- (40) 因为他把自己打扮得像个非洲土著, 精确地踏着节奏, 使三人的舞姿一下就溶成一体了。  
(刘索拉『你别无选择』)

그가 스스로를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분장하고 정확하게 리듬을 타 세 명의 춤추는 자태가 갑자기 하나가 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는 화자가 두 문형을 표현하고자 할 때에 일종의 주관적인 경향성을 갖는데, 把자문을 사용할 때에는 문장 전체의 의미가 아직 끝나지 않아 사건 발생 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반면, 使자문을 사용할 때에는 사건에 대한 의미 진술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어 使자문을 통해 완결 짓는다고 서술한다. (39)에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문장 전체의 의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刘伯이 후원의 잔디밭에서 개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다’는 전경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장면을 조성해주는 배경의 역할을 담당한다. 반면, (40)에서 使자문은 문장 전체의 중심 내용으로, ‘그가 아프리카 원주민 분장을 하고 리듬을 탔다’는 배경 정보의 뒷받침을 받아 결국 ‘세 명의 자태가 하나가 되었다’는 일종의 결론에 이르게 되니, 전경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모든 把자문을 일괄적으로 사동의미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여, 把자문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宛新政(2004)은 이를 보완해 把자문을 처치의미의 把자문과 사동의미의 把자문으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처치의미의 把자문은 일반적으로 ‘배경’이며 뒤에 후속절이 나오고,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주로 ‘전경’이며 뒤에 후속절이 나오지 않는다고 서술한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 (41) 结结巴巴的, 他把昨夜的事说了一遍, 虽然很费力, 可是说得不算不完全。  
(老舍『骆驼祥子』)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는데 비록 힘이 들긴 했지만 완전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다.

- (42) 一双黄眼珠儿, 一只小尖鼻子, 一张小薄嘴, 只有笑的时候, 才能把少年的俊俏露出一二来。  
(老舍『二马』)

노란 눈동자, 작고 날카로운 코, 작고 얇은 입은 웃을 때 비로소 소년의 준수함을 드러나게 한다.

(41)과 (42)은 공통적으로 把자문이 사용되었지만 의미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드러내는 정보도 다르다. (41)에서 把자문은 처치의미를 나타내며, ‘그가 한 말이 완전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다’라는 문장의 전경 정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는 배경 정보를 전달한다. 반면, (42)의 把자문은 사동의미를 나타내며, 문미에서 문장 전체의 핵심 의미를 전달한다. 선행절은 배경 정보로써 ‘소년의 준수함을 드러나게 한다’는 전경 정보가 효과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조건을 조성해준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32> ‘전경-배경’에 대한 기존 연구

		賀曉玲(2001)	宛新政(2004)
把자문	처치의미 把자문	배경	배경
	사동의미 把자문		전경
使자문		전경	·

위의 도표를 종합해보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은 모두 전경을 나타내어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절은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화용적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4.1.1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배경’

먼저, 『四世同堂』에서 복문으로 쓰인 사동의미의 把자문 1,410개를 추출한 후, 이를 대상으로 전경-배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기존 연구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사동의미의 把자문에 후행하는 절이 계속 등장하고 주요 의미를 전달하는 후행절을 뒷받침 해줄 경우 사동의미의 把자문을 ‘배경’으로 보고, 후행절 없이 문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경우 ‘전경’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전경으로 552회(39.15%), 배경으로 858회(60.85%) 사용되어 주로 배경 정보를 나타냈다. 다음의 예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43) a. 他把脊背挺直, 而把脑袋低下, 拱好的拳头放在头上, 停了有五六秒钟。  
그는 등을 곧게 세우고, 머리도 떨어뜨리고, 맞잡은 주먹을 머리 위에 올려두고는 5~6초간 멈춰있었다.
- b. 可是, 转了几条胡同, 把嗓子喊干, 并没作上一号买卖。  
하지만, 골목을 몇 번이나 돌고 목구멍이 마르도록 소리를 질러도 팔지 못했다.

(43a)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경 정보는 마지막 절인 ‘5~6초간 멈춰있었다’이다. 그리고 선행하는 3개의 절은 모두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멈춰있는 지에 대한 배경 장면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문장 전체의 핵심 내용이 아닌, 이를 뒷받침 해주는 배경 정보를 전달한다. (43b)도 문장의 주된 정보는 문미의 ‘팔지 못했다’이다. 단순히 팔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골목을 여러 번 돌고 소리를 목이 마르도록 지르는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팔지 못한 것이다. 즉, 선행절이 배경으로써 전경 정보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선행절에 포함되어 배경 정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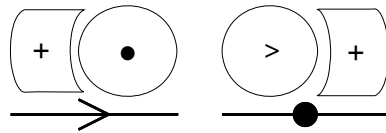
이처럼 화자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전경보다는 주로 배경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전경과 배경에 대한 Hopper & Thompson(1980)의 <도표31>에 의하면, 전경과 배경을 대표하는 속성은 ‘의지(volitionality)’와 ‘타동성(transitivity)’으로 개괄할 수 있다. 전경은 높은 의지와 높은 타동성을, 배경은 낮은 의지와 낮은 타동성을 지닌다. 하지만 목적어를 취하는 특성인 ‘타동성’이라는 요소는 결국 ‘의지’의 정도에 좌우될 수 있는데, 높은 의지일 경우 통제할 수 있는 목적어를 지니기에 충분하고, 높은 타동성을 지니게 된다. 즉, 전경과 배경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는 ‘의지’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전경-배경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갖는 ‘의지’의 정도가 어떠한지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분석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사동의미를 지닌 把자문의 의미적 근원으로의 접근이다. 把자의 원형적 의미로 돌아가 보면, 把자는 통제자의 피통제자에 대한 직접적 통제라는 원형적 의미를 지니고, 이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에서 사동자(반동체)의 피사동자(주동체)에 대한 영향으로 반영된다. 다음은 ‘의지’의 정도를 판단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동의미에 있어서 ‘의지’의 정도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대상은 주동체인 피사동자이다. 즉, 사동자의 영향에 피사동자가 어느 정도의 주체적 의지를 보이는 지가 논의의 중점이 된다. 다음의 도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도표33> 사동의미 把자문의 힘 역학 도식



왼쪽 도식은 정지경향의 주동체가 반동체의 통제에 의해 활동하게 되고, 오른쪽 도식은 본래 활동하고자 하는 주동체가 반동체의 힘에 의해 정지하게 됨을 나타낸다. 즉, 본래 지니고 있던 주동체의 의지가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채, 강한 반동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정지 및 활동이 결정된다. 따라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에서 피사동자(주동체)는 ‘낮은 의지’를 나타내며, 이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배경’이 되기를 선호한다는 본고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종합해보면,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의미상 주동체의 낮은 의지를 드러내며, 이것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문장 전체의 ‘배경’이 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 4.1.2 使자문과 ‘전경’

다음은 使자문에 대한 분석으로, 『四世同堂』에서 복문으로 쓰인 使자문 399개를 추출한 후, 이를 대상으로 전경-배경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분석 방법은 앞소절과 동일하게 使자문에 후행하는 절이 계속 등장하고 주요 의미를 전달하는 후행절을 뒷받침 해줄 경우 ‘배경’으로, 후행절 없이 문장 전체의 핵심이 되는 경우 ‘전경’으로 보았다. 분석 결과, 使자문은 전경으로 205회(51.25%), 배경으로 195회(48.75%) 사용되어, 전경이 미미하게 우세하다. 하지만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비교했을 때, 使자문에서 전경의 비율이 12.1% 더 선호되는 것으로 보아, 使자문과 전경의 관계를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44) a. 屋里的灯光原来很暗,可是他刚刚进了屋门,极强的灯光忽然由对面射来,使他瞎了一会儿。

집안 조명이 원래 어두운데, 그가 집 문을 막 들어서니 강한 조명이 갑자기 반대편에서 비춰 와서, 그를 잠시 앞이 안보이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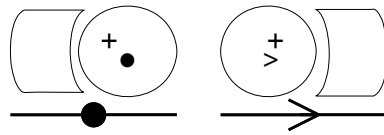
b. 她不是易于爱落泪的妇人,可是这半天的灾难使她没法不哭了。

그녀는 쉽게 눈물을 흘리는 여인이 아닌데, 이 반나절의 환난이 그녀를 울지 않을 수 없게 했다.

(44a)에서 ‘그가 잠시 앞이 안보이게 되었다’는 전경 정보에 대한 자세한 상황 설명은 선행하는 절에서 담당하고 있다. 집안 조명이 원래 어둡고, 그가 집 문을 막 들어서며, 강한 조명이 갑자기 비춰오는 일련의 사건들이 문미의 使자문으로 표현되는 전경 장면에서 생생한 묘사를 더한다. 즉, 使자문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는 달리 문장 전체의 전경 정보를 나타낸다. (44b)도 이와 다르지 않다. ‘반나절 동안 겪은 환난이 그녀를 울게 했다’는 문장의 핵심 정보는 선행하는 절에 의해 더 극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 그녀가 우는 것과 원래 쉽게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녀가 우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선행하는 배경 정보의 부연설명으로 전경인 使자문은 보다 풍부한 감정을 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使자문은 문미에서 전경 정보를 전달하며 문장 전체의 주제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使자문이 사동의미의 把자문에 비해 전경의 비율이 높은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또한 앞서 설명한 Hopper&Thompson(1980)의 ‘의지(volitionality)’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논의한 바에 따르면 전경과 배경을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는 ‘의지’의 정도라고 할 수 있다. 使자문과 전경-배경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使자문이 갖는 ‘의지’의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使자는 능동적 순용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지니고, 이는 使자문에서 사동자(반동체)의 영향을 받는 피사동자(주동체)의 능동적인 경향성으로 반영된다. 또한, 사동의미에 있어서 ‘의지’의 정도를 나타내기에는 적합한 대상은 주동체인 피사동자이다. 즉, 사동자의 영향에 피사동자가 어느 정도의 주체적 의지를 보이는 지가 논의의 중점이 된다. 다음의 도표를 살펴보자.

&lt;도표34&gt; 使자문의 힘 역학 도식



왼쪽 도식은 정지경향의 주동체가 반동체의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정지 경향을 유지함을 나타내고, 오른쪽 도식은 본래 활동하고자 하는 주동체가 반동체의 힘을 받음에도 여전히 활동경향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즉, 반동체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동체의 강력한 의지로 본래 지니고 있던 경향이 유지되며, 주동체가 원하는 대로 정지 및 활동이 결정된다. 따라서 使자문에서 피사동자(주동체)는 ‘높은 의지’를 나타내며, 이는 使자문이 사동의미의 把자문 보다 ‘전경’이 되기를 더 선호한다는 본고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종합해보면, 使자문은 의미상 주동체의 높은 의지를 드러내며, 이것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使자문이 사동의미의 把자문 보다 ‘전경’이 되기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반영된다.

## 4.2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함께 쓰일 때의 ‘전경-배경’

이제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배경으로, 使자문은 전경으로 나타는 것이 우세했고, 이는 두 문형이 서로 다른 문장에서 어떠한 화용기능을 담당하는 지 살펴본 결과였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장에서의 두 문형의 비교는 고려해야 할 다양한 변수들을 통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각기 특수성을 지닌 문장에서 두 문형의 일반적인 경향을 도출해내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소절에서는 두 문형의 화용상의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동일 문장 안에서 함께 쓰이는 경우에 주목하고자 한다. 두 문형이 함께 쓰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두 문형이 이어지는 서로 다른 절에 병렬(並列)하여 분포하는 경우(이하 병렬형)와 두 문형이 같은 절에서 함께 쓰여 한 문형이 다른 문형 안에 내포(內包)되는 경우(이하 내포형)이다.

#### 4.2.1 병렬형의 ‘전경-배경’

앞 소절의 결과를 적용해보면, ‘배경’이기를 선호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使자문 앞에, 使자문은 사동의미의 把자문에 비해 ‘전경’으로 더 잘 사용되므로 뒤에 분포하게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즉, ‘把\_\_\_\_, 使\_\_\_\_.’의 순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四世同堂』에서 두 문형이 한 문장 안에 병렬형으로 등장하는 문장들을 모두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다음을 보자.

- (45) a. 侵略者的罪恶不仅是把他的兄弟拆散, 而且使没有散开的父子也彼此不得已的冷淡了。

침략자의 죄악은 그의 형제를 흠어지게 했을 뿐 아니라, 흠어지지 않은 부자조차 서로 어쩔 수 없이 냉담해지게 했다.

- b. 可是, 那个理想把他, 象小孩玩的气球, 吹胀起来, 使他比他的本身扩大了多少倍。

하지만 그 이상(理想)은 그를 어린 아이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게 해서, 그가 그 자신보다 몇 배나 더 커지게 했다.

(45a)의 중심 내용은 침략자로 인해 부자지간이 냉담해지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선행절의 침략자가 그의 형제를 흠어지게 했다는 정보는 후행절과 마찬가지로 침략자의 죄악에 속하지만, 화자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단연 후행절이다. 선행절은 후행하는 정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서 ‘그의 형제가 흠어지다’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뒤에서 ‘흠어지지 않은 부자’라는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선행절에 쓰인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전경으로, 후행절의 使자문은 배경으로 사용되었다. (45b)에서도 선행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使자문을 뒷받침 해주는 배경 정보를 담고 있다. 앞에서 그 이상이 어떻게 해서 그를 몇 배나 더 커지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설명을 통해 문장의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었다.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앞에서 배경의 역할을 使자문은 뒤에서 전경의 역할을 담당한다.

『四世同堂』 전체에서 병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총 38회로, 그 중 (45)에서와 같은 ‘把\_\_\_\_, 使\_\_\_\_.’의 형태가 26회로 우세하여 앞서 세운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문형의 화용 차이가 동일 문장에서 병렬형으로 쓰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두 문형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분석 대상의 범위를 넓혀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46) a. 她愿把丁约翰先劝走, 好教瑞宣静静的想办法。

그녀는 丁约翰을 먼저 떠나게 하고서 瑞宣이 조용히 방법을 생각하게 하고 싶었다.

b. 你就不会把她扯回来, 让我教训教训她吗?

그녀를 끌어 돌아오게 해서 내가 그녀를 혼내주게 하지 않겠니?

c. 他晓得教老人看了钱先生的脊背, 是会使老人几天吃不下饭去的。

노인에게 钱선생의 등을 보게 하는 것은 노인을 며칠간 밥도 못 넘기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d. 那问题或者只教老三为难, 使自己显出懦弱。

그 문제는 아마 老三을 힘들게 해서, 스스로 연약함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46a)와 (46b)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教(이하 教자문)과 让(이하 让자문)과 같은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표현들과 함께 쓰일 때, 어떠한 화용상의 분포를 보이는 지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46a)에서 선행절은 후행하는 전경 정보인 ‘瑞宣이 조용히 방법을 생각하게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46b)에서도 선행절에 있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그녀를 혼내주고자 하는 문장의 주제를 담은 후행절을 만족시키기 위해 청자가 해야 할 일을 나타낸다. 『四世同堂』에서 이와 같은 경우는 총 경우 28회 중 27회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使자문 뿐 아니라 다른 사동표현들과 함께 쓰일 때에도 배경으로 존재한다.

반면, (46c)와 (46d)는 使자문과 사동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들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46c)에서는 노인이 钱선생의 등을 보는 조건이 충족되면 노인이 며칠간 밥을 드시지 못하게 된다는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앞에서 조건이 되는 教자문은 배경이고 뒤에서 문장 전체의 결론을 말하는 使자문은 전경이 된다. (46d)에서도 使자문은 문미에 쓰여 그 문제가 결국 그의 연약함을 드러

낼 것이라는 전경 정보를 전달한다. 『四世同堂』에서 이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총 11회 중 7회로, 使자문은 사동의미의 把자문뿐 아니라 다른 사동표현들과 함께 쓰일 때에도 전경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두 문형의 ‘전경-배경’ 분포는 다른 사동표현들과의 비교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 4.2.2 내포형의 ‘전경-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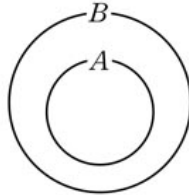
본 소절에서는 각각 ‘배경’과 ‘전경’이기를 선호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같은 절에서 내포형으로 쓰일 때에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 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使자문에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使\_\_[把\_\_]’) 혹은 사동의미의 把자문에 使자문이 삽입된 형태(‘把\_\_[使\_\_]’) 중 어느 경우가 더 선호되는 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그동안 논의된 결과를 종합하여 가설을 세워보자. 결국 판단의 중점은 전경이 배경을 포함하는가, 배경이 전경을 포함하는가에 있다. 배경의 본질은 전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상황을 조성해주는 것에 있다. 반면, 전경은 배경의 이러한 도움으로 문장의 주제를 나타낸다. 따라서 배경은 전경에 포함되어서 전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정보를 그 안에서 충실히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 즉, ‘使\_\_[把\_\_]’의 형태가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四世同堂』에서 두 문형이 같은 절 안에 내포형으로 등장하는 문장들을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다음을 보자.

- (47) a. 她深知道华美的衣服, 悦耳的言笑, 丰腴的酒席, 都是使她把身心腐烂掉, 而被扔弃在烂死岗子的毒药。  
그녀는 화려한 옷과 듣기 좋은 담소, 풍성한 음식은 모두 그녀가 심신을 부패하게 하는 것이고, 썩은 언덕에 버려진 독약이라는 것을 알았다.
- b. 来到院中, 他故意的夸奖那些石榴, 好使祁老人把眼泪收回去。  
안뜰에 와서 그는 일부러 석류나무들을 치켜세워祁노인이 눈물을 거두어지게 했다.

(47a)에서 두 문형이 함께 쓰인 부분을 주목해보자. ‘…使她把身心腐烂掉(…이

그녀로 하여금 심신을 부패하게 한다)’에서 전달하고자하는 정보는 무엇일까. 다음의 그림을 보자.

<그림2> 집합 A와 B의 포함 관계



위의 그림은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 모습이며, A를 B의 부분집합<sup>40)</sup>이라고 한다. 단, 여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있는데 집합 A의 원소가 모두 집합 B의 원소여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B는 A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A와 B의 관계에 있어서 B는 전체를 A는 부분을 나타낸다. 이러한 관계를 적용해보면, A는 ‘她把身心腐烂掉(그녀가 심신을 부패하게 했다)’에 해당한다. 그리고 B는 ‘…使她把身心腐烂掉(…이 그녀가 심신을 부패하게 했다)’로써 A를 완전히 포함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전달한다. 그렇다면 A와 B 중 전경은 무엇일까. 물론 A도 구절의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일부분이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정확한 정보는 B 즉, 전체 내용이다. A는 B를 이루는 정보의 일부가 되어 B를 효과적으로 부연해준다. 온갖 화려한 것들이 그녀로 하여금 어떻게 되도록 하는데, 그 ‘어떻게’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A의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47a)에서 使자문은 전경으로, 내포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배경으로 나타난다. 같은 맥락으로, (47b)의 ‘…使祁老人把眼泪收回去(…해서 祁노인이 눈물을 거두어지게 했다)’에서 만약 부분이 되는 ‘祁老人把眼泪收回去(祁노인이 눈물을 거두어지게 했다)’이 문장의 전경이라고 가정해보자. 구절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정보는 祁노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가 석류나무를 과장해서 치켜세웠다는 것인데, 전경으로 가정한 부분은 이를 충분히 반영해내지 못한다. 오히려 祁노인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지를 설명해주고 있으니, 전경을 부연해주는 배경 정보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使자문은 구절 전체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전경에 해

40) 두 집합 A와 B가 있고 집합 B의 원소가 모두 집합 A의 원소가 될 때, 집합 B를 집합 A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A \supset B$ ’, ‘ $B \subset A$ ’로 나타낸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당하고, 내포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배경으로 드러난다.

『四世同堂』에서 내포형으로 사용되는 총 경우 중 (47)의 예와 같은 ‘使\_\_[把\_\_]’의 형태가 전부를 차지해, 앞서 세운 가설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문형의 화용 차이가 같은 절에서 내포형으로 사용되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두 문형의 차이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 분석 대상의 범위를 넓혀 사동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표현들과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자.

(48) a. 过了一会儿, 她教长顺把饺子送过去。

잠시 뒤에, 그녀는 长顺에게 만두가 전해지게 했다.

b. 她好象知道, 韵梅不乐意让她把妞子抱过去, 所以在后面跟着。

韵梅가 그녀에게 妞子가 안겨가게 한 것이 마음에 걸려 뒤따라오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는 듯 했다.

(48a)에서 ‘长顺把饺子送过去(长顺은 만두가 전해지게 했다)’는 배경 정보로써, 그녀가 长顺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다는 전경 정보를 부연설명해 주고 있고, (48b)의 ‘她把妞子抱过去(그녀는 妞子이 안겨 가게 했다)’ 역시 韵梅가 그녀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고 그것을 떼떠름하게 여겼다는 전경 정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四世同堂』 전체에서 이와 같이 사용된 예문은 총 10회로 반대의 경우는 찾아볼 수 없었다. 즉,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使자문뿐 아니라 다른 사동표현과 함께 쓰일 때에도 내포되어 배경으로 사용된다.

### 4.3 소결

이제까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실제 사용상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고자 다음과 같은 분석을 진행하였다.

우선, 담화화용론에서 사용되는 ‘전경-배경’ 이론을 도입하여 전경과 배경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였다. Hopper&Thompson(1980)에 의하면 전경(前景)은 텍스트의 중추적인 부분으로, 주요 관심부이자 핵심부로서 높은 의지(high volitionality)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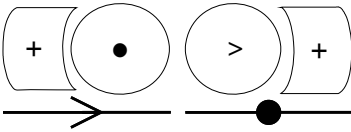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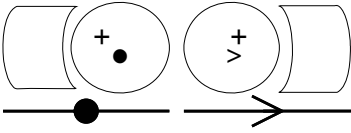


지닌다. 반면, 배경(背景)은 주 에피소드에 대한 부차적인 부분으로, 주변 사건 묘사나 장면 설정을 담당함으로써 낮은 의지(low volitionality)를 갖는다. 이를 토대로 두 문형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서로 다른 문장에서 각기 어떠한 정보를 전달하는 지 ‘전경-배경’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주로 문장 전체에서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장면을 조성하는 배경 정보를 전달하고, 使자문은 문미에서 문장 전체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전경 정보를 나타낸다. 이는 두 문형이 같은 문장에서 함께 쓰일 때에도 동일하게 반영되어, 두 문형이 병렬형(並列型)으로 사용되는 경우 배경 정보를 전달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전경 정보를 나타내는 使자문에 선행하여 출현하고, 두 문형이 같은 절에서 내포형(內包型)으로 사용되는 경우 배경인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전경인 使자문 안에 포함되어 사용된다. 종합해보면, 두 문형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정보전달 상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며, 화자는 두 문형을 실제 사용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게 된다.

위와 같은 차이가 비롯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把자의 원형의미가 반영되어 사동자 즉, 반동체의 직접적 통제가 드러나 있다. 상대적으로 주동체는 반동체를 제압하거나 저항할만한 강한 의지를 지니지 못해 그의 통제에 의해 변화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는 실제 문장 사용에 반영되어,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약한 의지로써 문장 전체의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배경’으로 존재하게 한다. 반면, 使자문은 使자의 원형적 의미로 인해 피사동자 즉, 주동체의 능동적인 순응이 드러난다. 반동체가 통제를 가하고 있지만 주동체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녀서 본연의 경향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역시 화자가 使자문을 사용할 때에 반영되어, 강한 의지를 지녀 문장 전체의 핵심내용이 되는 ‘전경’으로 작용하게 한다. 이상을 도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35> 의미에 따른 화용의 차이

	의미 층위	화용 층위
사 동 의 미 把 자 문	 반동체의 ‘직접적 통제’ ↓ 주동체의 약한 의지	<배경(背景)> 약한 의지 약한 타동성 ↓ 부차적 역할 주변 사건 묘사 장면 설정
使 자 문	 반동체의 영향 ↓ 주동체의 ‘능동적 순응’ 주동체의 강한 의지	<전경(前景)> 강한 의지 강한 타동성 ↓ 주제 역할 중추적인 부분 주요 관심부 및 핵심부

## 5. 결론

본고는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를 비교하고자 두 문형을 의미적·통사적·화용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把자와 使자는 각각 ‘직접적 통제’와 ‘능동적 순응’이라는 원형적 의미를 갖는다.

2) 각 단어의 원형적 의미는 문장에 반영되어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의 의미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사동자의 피사동자에 대한 통제에 핵심이 있고 使자문은 피사동자의 사동자에 대한 순응과 능동적 행위에 중점이 있다. 또한, 원형적 의미는 사동자와 피사동자의 유·무정성에 따른 사동성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사동자가 유정물인 경우 사동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使자문은 피사동자가 유정물일 때 강력한 사동성을 갖는다.

3) 두 문형의 사동의미를 Talmy(1988)의 힘 역학 도식을 이용해 비교한 결과,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반동체가 상대적인 큰 힘으로 주동체의 활동 및 정지를 직접 통제하는 형태인 반면, 使자문은 주동체가 내재적인 큰 힘으로 반동체의 영향에 순응하여 능동적으로 활동 및 정지를 유지하는 형태이다.

둘째, 두 문형의 의미 차이는 통사 구조에 반영되어 문장의 결합조건을 결정하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어부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두 문형은 주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지니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제자·사동자·반동체 중심인 의미 특징이 통사에 반영되어, 보다 강력한 통제성을 갖는 주어를 필요로 하게 되고, 이에 주로 유정물 이나 구체사물이 주어에 위치한다. 반면, 使자문은 피통제자·피사동자·주동체가 핵심이 되는 만큼 통사적으로 목적어가 중심이 되어, 주어 자리에는 상대적으로 힘이 미약한 사건이나 추상사물이 우세한다.

2) 목적어부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두 문형은 목적어의 유·무정성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갖는다. 의미상 통제자·사동자·반동체가 중심이 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사적으로 강력한 목적어를 갖기 어려워 무정물 목적어가 주로 사용되는 반면, 使자문은 의미상 피통제자·피사동자·주동체가 핵심이 되므로 목적어가 중심이 되어 유정물 목적어가 우세하다.

3) 술어부에 대한 카이제곱검정 결과, 두 문형은 술어의 의미 및 형식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갖는다. 의미 측면에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제력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통제 행위 및 동작이 드러나는 술어가 우위를 차지하는 반면, 使자문은 능동성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피사동자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느끼는 심리·감정 및 생리·감각에 관련된 술어들이 자주 사용된다. 형식 측면에서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통제행위의 결과를 함께 제시하는 動結式 술어를 선호하는 반면, 使자문은 심리·감각을 나타내는 단독 술어로도 충분히 피사동자의 능동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單獨式 술어가 우위를 차지한다.

셋째, 두 문형의 의미 차이는 실제 의사소통 행위에서 화자(話者)의 언어 구성 방식을 결정하는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동의미의 把자문은 문장 전체에서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조건을 설정하고 장면을 조성하는 배경 정보를 전달한다. 이는 사동자 즉, 반동체의 직접적 통제로 설명되는 把자의 원형적 의미에서 비롯되며, 여기에서 주동체는 반동체를 제압하거나 저항할만한 강한 의지를 지니지 못해 통제에 의해 변화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이는 화자의 실제 문장 사용에 반영되어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약한 의지로서 문장 전체의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배경’으로 존재하게 한다.

2) 반면, 使자문은 문미에서 문장 전체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전경 정보를 전달하는데, 이는 피사동자 즉, 주동체의 능동적인 순응성을 나타내는 使자에서 비롯되며, 여기에서 주동체는 반동체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지녀 본연의 경향성을 유지하게 된다. 이는 화자가 使자문을 사용할 때에 반영되어 강한 의지로 문장 전체의 핵심내용이 되는 ‘전경’으로 작용하게 된다.

3) 이러한 두 문형의 화용적 차이는 사동의미의 把자문과 使자문이 동일 문장에서 함께 쓰일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병렬형에서는 배경 정보를 전달하는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전경 정보를 나타내는 使자문에 선행하여 출현하고, 두 문형이 같은 절에서 내포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배경인 사동의미의 把자문이 전경인 使자문 안에 포함되어 사용되는 형태가 선호된다.

지금까지 본고는 현대중국어 把자문과 使자문의 사동의미에 대해 종합적으로 비교 연구하였다. 두 문형의 의미 차이는 통사 및 화용 층위에 반영되어 통사 구조 및 화자의 실제 언어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즉, 두 문형의 통사적·화용적 차이는 단순한 경향성에서 비롯되는 표면적인 현상이 아닌, 근원적인 의미 차이에서 비롯되는 습당한 결과이다.

## 【참고문헌】

### 1. 사전류

- 羅竹風(1995), 『漢語大詞典』(5刷), 漢語大詞典出版社.  
 呂叔湘(1999), 『現代漢語八百詞』(5版), 商務印書館.  
 穀衍奎(2003), 『漢字源流字典』, 華夏出版社.  
 高大民族文化研究所(2004), 『中韓辭典』(2版 2刷), 高大民族文化研究所.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05), 『現代漢語詞典』(5版), 商務印書館.  
 국립 국어원(<http://www.korean.go.kr/>) 『표준 국어대사전』.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 용례 간단 검색(<http://www.sejong.or.kr/>).

### 2. 단행본

- 王 力(1943), 『中國現代語法』, 商務印書館.  
 \_\_\_\_\_(1944), 『中國語法理論』, 中華書局.  
 \_\_\_\_\_(1946), 『中國語法綱要』, 開明書店.  
 \_\_\_\_\_(1958), 『漢語史稿』語法篇, 中華書局.  
 朱德熙(1982), 『語法講義』, 商務印書館.  
 容 庚(1985), 『金文編』, 中華書局.  
 太田辰夫(1987), 『中國語歷史文法』, 北京大學出版社.  
 李玲璞(1990), 『古代漢語精解』, 上海文藝出版社.  
 老 舍(1991), 『四世同堂』, 『老舍全集』, 人民文學出版社.  
 박덕준 외(1997), 『중국어 어법 발전사』, 사람과 책.  
 임지룡(1997),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馬建忠(1998), 『馬氏文通』, 商務印書館.  
 Talmy, Leonard(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MIT Press.  
 김경희(2000), 『게슈탈트 심리학』, 학지사.  
 이기동(2000), 『인지언어학』, 한국문화사.

- 이영주(2000),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 오택섭(2003), 『사회과학 데이터 분석법1』, 나남.
- 蔣紹愚(2005),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大學出版社.
- 周 紅(2005), 『現代漢語致使範疇研究』, 復旦大學出版社.
- 양동숙(2005), 『갑골문 자전을 겸한 갑골문해독』, 書藝文人畫.
- 최남규(2005), 『중국고대금문의 이해(II)』, 신아사.
- 段玉裁(2006), 『說文解字注』, 中州古籍出版社.
- 劉月華 外(2007), 『實用現代漢語語法』(7刷), 商務印書館.
- 허성도(2007),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 책.
- Ungerer, Friedrich · Hans-Jörg Schmid(1996[2010]), 『An Introduction to Cognitive Linguistics』, Addison Wesley Publishing Company(김동환 · 임지룡 역(2010), 『인지언어학 개론』(개정판), 태학사).
- 김현철 · 김시연(2011), 『중국어학의 이해』, 학고방.
- 蔣紹愚(1989[2012]), 『古汉语词汇纲要』, 北京大学出版社(이강재 역(2012), 『고대중국어어휘의미론』, 차이나하우스)
- 성태제(2012), 『현대 기초통계학 이해와 적용』, 학지사.

### 3. 학위논문

- 묘연창(1998), “現代中國語 使構文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민숙(2000), “현대 중국어의 주어와 주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賀曉玲(2001), “兩種表致使義句式的異同考察—“使”字句和“把”字句, 暨南大學 碩士學位論文.
- 박미정(2001), “현대중국어의 사동표현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郭姝慧(2004), “現代漢語致使句式研究”, 北京語言文化大學 博士學位論文.
- 牛順心(2004), “漢語中致使範疇的結構類型研究”, 上海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宛新政(2004), “現代漢語致使句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 周 紅(2004), “現代漢語致使範疇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김종영(2004), “‘Force Dynamics’를 활용한 어휘와 표현의 의미 지도 방법”,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劉燕君(2007), “使字句與把字句的動力意象圖式比較”, 北京語言大學 碩士研究生學位論文.

- 童 燕(2007), “使字句和把字句異同分析”, 上海外國語大學 碩士學位論文.
- 최길립(2007), “한국어와 중국어 사동문의 대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張碧純(2008), “Mandarin Chinese Causative Continuum”, 國立政治大學 碩士學位論文.
- 정주영(2008), “『紅樓夢』‘把’자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경환(2008), “현대중국어 把字句의 객관성·주관성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계화(2008), “‘把字句’考”,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현선(2011), “『紅樓夢』사역범주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봉민(2012), “한국어와 중국어의 사동사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규(2012), “形聲字의 表義兼表音 造字原理 研究”,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학술지

- 呂淑湘(1948), “把字用法的研究”, 『漢語語法論文集』.
- \_\_\_\_\_(1986), “漢語句法的靈活性”, 『中國語文』.
- Rosch(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 Talmy(1988), “Force dynamics in language and cognition”, 『Cognitive Science 12』.
- 薛風生(1994), “把字句和被字句的結構意義”, 『功能主義和漢語語法』, 北京語言大學院出版社.
- 崔希亮(1995), “把字句的若干句法語義問題”, 『世界漢語教學』.
- 김의진(1995), “老舍『四世同堂』연구”, 『中國現代文學』.
- 李大忠(1996), “使字兼語句偏誤分析”, 『世界漢語教學』.
- 강혜근(1996), “六書互兼設에 대한 고찰”, 『中國語文學』.
- 김윤경(1997), “現代漢語使動句研究”, 『中國言語研究』.
- 徐燕青(1999), “使字句與把字句的異同考察”, 『世界漢語教學』.
- 이진영(1999), “漢語 處置文 變遷考(1)—把字文을 중심으로”, 『中國人文科學』.
- 范 曉(2000), “論致使結構”, 『語法研究與探索10』, 商務印書館.
- \_\_\_\_\_(2001), “動詞配價和漢語的把字句”, 『中國語文』.
- 陳昌來(2001), “論現代漢語的致使結構”, 『井岡山師範學院學報』.
- 李志忠(2003), “老舍和汉语规范化”, 『新疆师范大学学报5』.
- 김현철(2003), “몇 가지 중국 어법용어의 정의문제에 대하여”, 『中國語文學』.
- 葉向陽(2004), “把字句的致使性解釋”, 『世界漢語教學』.



- 周 紅(2006a), “漢語致使範疇建構研究”, 『渤海大學學報』.
- \_\_\_\_\_(2006b), “使字句與把字句致使表達異同分析”, 『吉林省教育學院學報』.
- 박재연(2007), “문법 형식의 전경 의미와 배경 의미”, 『한국어 의미학』.
- 임명화(2007), “고대한어 품사활용에 대한 몇가지 문제”, 『中國人文科學』.
- 崔麗麗(2008), “使字句研究綜述”, 『雲夢學刊』.
- 郭姝慧(2008), “把字句與使字句的置換”, 『山西大學學報』.
- 박연옥 · 박동호(2008),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사동문 대조 연구”, 『언어와 문화』.
- 박재범(2008), “老舍의『四世同堂』: 家族史와 時代史의 融合的 試圖”, 『中國小說論叢』.
- 박수진(2010), “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 유형에 따른 전경·배경의 구분 기준과 그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 조은영(2010), “전경과 배경의 관점에서 본 스페인어 복합문 분석”, 『언어과학연구』.
- 신미경 · 박애양(2011), “비처치식 把자문의 과잉일반화”, 『中國學研究』.

## 【부 록】

### [부록 1] 카이제곱 분포표

유의수준 자유도	.10	.05	.025	.01	.005
1	2.17	3.84	5.02	6.63	7.88
2	4.61	5.99	7.38	9.21	10.60
3	6.25	7.81	9.35	11.34	12.84
4	7.78	9.49	11.14	13.28	14.86
5	9.24	11.07	12.83	15.09	16.75

### [부록 2] 통계용 데이터 코딩(주어부)

※ 문형: 1=사동의미의 把자문, 2=使자문

기준: 1=유정, 2=무정

문형	주어 유 · 무정성	빈도
1	1	1482
1	2	171
2	1	48
2	2	592

### [부록 3] 통계용 데이터 코딩(목적어부)

※ 문형: 1=사동의미의 把자문, 2=使자문

기준: 1=유정, 2=무정

문형	목적어 유 · 무정성	빈도
1	1	483
1	2	1172
2	1	506
2	2	133

## [부록 4] 통계용 데이터 코딩(술어부)

## ◎ 술어의미

※ 문형: 1=사동의미의 把자문, 2=使자문

기준: 1=심리·감각, 2=행위·동작, 3=성질·상태

문형	술어의미	빈도
1	1	83
1	2	1541
1	3	29
2	1	331
2	2	235
2	3	82

## ◎ 술어형식

※ 문형: 1=사동의미의 把자문, 2=使자문

기준: 1=動結式, 2=動趨式, 3=動得式, 4=動量式, 5=單獨式

문형	술어형식	빈도
1	1	923
1	2	589
1	3	117
1	4	1
1	5	23
2	1	138
2	2	57
2	3	14
2	4	50
2	5	381

## 【中文摘要】

# 关于现代汉语“把”字句 和“使”字句使动意义的对比研究

— 老舍《四世同堂》为中心

金 志 映

目前,“把”字句研究的主流内容为处置意义,但是对“把”字句的使动意义相关考虑相对较少,学习和准确使用“把”字句形成了一定的困难。为此本文将焦点放在表达使动意义的“把”字句上,通过与最具代表性的使动表现“使”字句的对比,明确探究两种句型的使动意义。

本文以老舍作品《四世同堂》中出现的具有使动意义的整个“把”字句和“使”字句作为对象,在意义、语法、语用规律层面对比和分析两种句型。原有研究仅仅停留在单纯地对比两种句型的可视性差异,本文将进一步在意义上结合语法、语用规律,一并考察两种句型产生差异的原因。

本文所获研究结果如下。

第一、使动意义的“把”字句和“使”字句的意义差异如下。

- 1) 根据原始字形分析,“把”字和“使”字各自具有‘直接控制’和‘能动顺应’的原型意义。
- 2) 这类原型意义反映在文章中表现出了两种句型的意义特点。使动意义的“把”字句重点在使动方对被动方的控制,“使”字句重点在于被动方对使动方的顺应和能动行为。
- 3) 利用Talmy(1988)的力动态模式对比两种句型的使动意义来看,① 使动意义的“把”字句是反作用体以相对较大力量直接控制主动体的活动及停止的形态。② “使”字句是主动体以内较大力量顺应反作用体影响而能动保持活动及停止的形态。

第二、两种句型的意义差异反映在语法结构决定文章的结合条件, 分析结果如下。

对主语进行卡方检验结果, 两种句型对主语的有、无情性显现显著性差异, 互相具有密切相关关系。① 使动意义的“把”字句, 作为控制者、使动方、反作用体中心的意义特点反映在语法上, 具有更强控制性的有情物或具体事物位于主语。② “使”字句的核心是被控制方、被使动方、主动体, 相对力量较弱的事件或抽象事物作为宾语使用。

对宾语进行卡方检验结果, 两种句型对宾语的有、无情性显现显著性差异, 互相具有密切相关关系。① 在意义上作为控制方、使动方、反作用体中心的使动意义的“把”字句, 很难具有语法上较为强烈的宾语, 因此主要使用无情物宾语。② “使”字句在意义上被控制方、被使动方、主动体作为核心, 因此宾语为主, 有情物宾语占据优势。

对术语的卡方检验结果, 两种句型对术语的意义及形式显现显著性差异, 相互具有密切相关关系。① 在术语的意义层面, 在使动意义的“把”字句, 明确显现控制力的具体行为及动作术语占据优势, 相反, “使”字句常使用能动性更易显露的心理、感觉术语。② 在形式层面, 使动意义的“把”字句以提示控制行为结果的动结式术语、“使”字句以显露心理、感觉的单独术语也能充分显示被使动方的能动性, 因此单独式术语占据优势。

第三、两种句型的意义差异在实际沟通行为中决定说话人的语言组成方式, 分析结构如下。

- 1) 两种句型用于相互不同的文章, ① 使动意义的“把”字句在文章中设置用于引出主题的条件, 传递营造场景的背景信息。这源于以使动方(反作用体)的直接控制说明的“把”字原型意义, 被使动方(主动体)不具有制服或抵御反作用体的强烈意志, 导致因控制而变化的结果。这是使动意义的“把”字句以较弱意志倾向, 作为负责整体文章次要作用的‘背景’存在。② “使”字句在篇尾传递用以传达文章核心内容的前景信息。这源于显现被使动方(主动体)能动顺应性的“使”字, 主动体虽受使动方(反作用体)的控制, 但具有可抵御的强大意志, 因此保持原本倾向性。这是“使”字句以其强大意志倾向, 作为整个文章核心内容的‘前景’发挥作用。
- 2) 两种句型同时用于相同文章, ① 两种句型在相继的不同段并列使用时, 传达背景信息的使动意义“把”字句先于显现前景信息的“使”字句出现。② 两种句型在相同段中以内含方式使用时, 作为背景的使动意义“把”字句包括在作为前景的“使”字句内

使用的形态更为优先。

综合而言,使动意义的“把”字句和“使”字句的意义差异反应在语法及语用规律层上,直接影响文章成分的组合条件以及说话人的实际语言使用。即,两种句型的语法、语用规律差异是从根源性意义差异引起的妥当结果,而非源于单纯倾向性的表面现象。

**关键词：**使动、“把”字句、“使”字句、原型意义、卡方( $\chi^2$ )检验、前景、背景

**学 号：**2010—20010